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26호 【루계 제23443호】 주체100(2011)년 5월 6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당의 부름따라 전인민적총공세로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4월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기세로 계속 전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무엇보다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분출되여야 하며 대고조의 불길도 경제전선에서부터 더욱 세차게 타올라야 합니다.》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대고조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로동계급이 4월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기계공업성에서

기계공업성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뜻깊은 4월에 일터마다에서 생산돌격전을 벌려 맡겨진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대고조전투장들에 필요한 대상설비생산투쟁에 박차를 가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산울림을 높이 울려온 이들은 성적인 4월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발전기와 각종 변압기, 전동기 등 중요지표생산과제도 빛나게 결속하였다.

기계공업성의 일군들은 4월계획수행을 위한 경제작전을 짜고들었다. 특히 희천발전소건설장, 흥남가스화대상건설장에 보내줄 대상설비들과 농업전선에 보내줄 영농부속품생산을 결속하는데 중심을 두고 생산조직과 기술지도를 잘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대담한 공격전을 벌려 월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계획수행기간 백두산선군청년1호발전소의 발전설비생산을 빛나게 결속하였으며 희천2호발전소 발전설비부분품생산에서도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흥남가스화 1계렬설비생산을 빛나게 결속하여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한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승리의 신심에 넘쳐 2계렬설비생산투쟁에 박차를 가하여 제관 및 가공실적을 부쩍 끌어올리였다.

전기기계공업관리국, 공작기계공업관리국, 륜전기계공업관리국에서도 4월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특히 전기기계공업관리국의 일군들과 산하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 생산조건을 마련하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관리국적인 월계획을 1.6배로 넘쳐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금성뜨락또르공장, 희천정밀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전선에 보내줄 농기계부속품생산을 지표별로 결속하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려 성과를 확대하였다.

본사기자 리병춘

림업성에서

림업성아래 각지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통나무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4월 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량강도림업관리국아래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의 로동계급이 증산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였다.

관리국의 일군들은 사업소들에서 1.4분기에 거둔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월 통나무생산목표를 높이 세우도록 하는 한편 생산현장들에 내려가 걸린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로동자, 기술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연암갱목생산사업소, 백암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높이 세운 통나무생산목표를 훨씬 앞당겨 끝낼 기세로 대용연료에 의한 운반비중을 높이면서 줄기찬 투쟁을 벌려 많은 량의 통나무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강도림업관리국과 함경북도림업관리국아래 림산, 갱목생산사업소들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앞선 작업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여 마감나르기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였다. 덕천, 북창, 신양갱목생산사업소를 비롯한 평안남도림업관리국아래 사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탄광들에 필요한 동발나무를 원만히 보장할 기세드높이 산판마다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갱목생산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함경남도와 평안북도림업관리국아래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많은 량의 통나무를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었다.

본사기자 정경철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1.4분기에 이어 4월에도 석탄생산계획과 지표별굴진계획을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계획수행기간 련합기업소에서는 2.8직동청년탄광과 천성청년탄광을 비롯한 탄광들에서 굴진을 다그쳐 예비채탄장을 늘이도록 하면서 석탄운반능력을 높이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고 내려가 탄부들과 함께 증산투쟁을 벌리면서 생산에서 걸린 고리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2.8직동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4월에도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탄광에서는 9갱과 12갱을 비롯한 전반적갱들에서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전망이 좋은 탄밭들을 계속 늘이고 채탄장마다에 만부하를 걸어 지난해보다 높이 세운 4월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였다.

천성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혁신의 한길로 기운차게 내달렸다. 탄광에서는 주요개소들에 굴진력량을 집중하고 지상단위의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면서 갱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석탄공업대회이후 탄광에서는 석탄생산이 높은 수준으로 뛰여올랐고 4월에도 높이 세운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신창청년탄광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탄광에서는 더 요구되는 동발나무를 자체로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굴진을 앞세워 예비채탄장을 끊임없이 늘여 생산성과를 확대하였다.

령대탄광의 탄부들도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힘찬 투쟁을 벌려 뜻깊은 4월을 로력적성과로 빛내이였다.

본사기자 강명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뜻깊은 4월 세멘트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이곳 로동계급은 수도의 10만세대살림집건설장들과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보내줄 불같은 마음을 안고 드센 공격전을 벌리였다.

원료, 연료보장을 맡은 상원석회석광산과 삼청광산, 화천탄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세멘트생산에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많은 량의 원료와 연료들을 생산하였다.

조합원료직장, 소성직장, 세멘트직장의 로동계급도 설비들의 운전에서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과학적인 생산방법들을 받아들여 세멘트생산량을 종전보다 훨씬 늘이였다.

특히 소성직장의 소성공들은 운영중에 있는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로의 가동률을 높여 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정성일

상농광산에서

상농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1.4분기계획을 빛나게 수행한데 이어 뜻깊은 4월에도 높이 세운 광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광산의 일군들은 광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고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증산투쟁의 불길은 6.6갱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갱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증산의 돌파구를 광량확보에서 찾고 합리적인 발파방법으로 광물생산을 부쩍 늘이였다.

신흥갱에서는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광물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로천갱과 봉화갱의 일군들과 생산자들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설비관리에 힘을 넣어 광물생산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콘베아갱에서는 광석운반능력을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고 순회점검을 정상화하여 캐낸 광석을 제때에 선광장으로 보내주었다. 선광직장에서는 광석의 크기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보장하면서 설비들의 운전에서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선광실수률을 훨씬 높이였다. 공무직장을 비롯한 보장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농업전선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자

유기질복합비료공장건설 적극 추진

평양시에서

평양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유기질복합비료공장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있다. 공사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종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달라진 공사장에서는 현재 방대한 면적의 구내포장공사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붉은기들이 세차게 나붓기고 힘있는 노래소리가 울려퍼지는 건설장은 그야말로 치렬한 격전장을 방불케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여러가지 미생물비료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양시에 규모가 큰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시당위원회의 일군들은 공장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책임일군을 비롯한 시당위원회일군들은 건설현장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건설지휘부에서는 단계별목표를 높이 세우고 시공지도와 기술지도를 따라세우고있다.

평양시건설사단의 지휘관들은 울타리공사와 2만6 000여㎡에 달하는 구내포장공사를 동시에 내밀혁신적인 안을 내놓고 로력조직을 짜고들면서 전투지휘를 패기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1단계와 2단계 울타리공사와 7 800㎡에 달하는 1단계 구내포장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으며 현재 2단계 구내포장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공사에 떨쳐나선 평양시건설사단의 건설자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를 심장깊이 새기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혁신의 앞장에는 락랑구역려단과 만경대구역려단, 대동강구역려단과 평천구역려단이 서있다. 락랑구역려단 려단장 리호철, 만경대구역려단 려단장 김룡화동무들은 언제나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전투원들을 이끌어 날마다 맡겨진 계획을 2배로 넘쳐 수행하게 하고있다. 리성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란하게 하여 건설에 필요한 골재를 제때에 보장하고있다.

일군들의 지휘밑에 자동차운전사들은 공사의 성과가 수송을 맡은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밤낮이 따로 없는 긴장한 수송전투를 벌리고있다.

공장건설이 진척될수록 지원자들의 열의도 높아지고있다.

평양시검찰소 일군들은 공장건설을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수백㎥의 골재와 많은 후방물자를 싣고 공사장을 찾아와 건설자들을 고무하였으며 시와 여러 구역의 수많은 일군들도 건설장에 뜨거운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평양산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많은 후방물자를 싣고 건설장을 여러차례나 찾아와 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공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성의있는 지원속에 건설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최수복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철강재를 보내주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북부고산지대에서 감자심기 시작

북부고산지대 감자산지들에서 감자심기가 시작되였다. 감자산지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불리한 봄철일기조건에 맞는 앞선 재배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올해 감자농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감자농사에서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대홍단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감자심기의 앞장에 섰다.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백두삼천리벌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열의를 안고 분발해나섰다. 이들은 감자농사에서 기본은 종자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올해의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싹틔우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였다.

이 성과에 기초하여 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감자심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한개 농장씩 맡고 현지에 내려간 군일군들은 감자심기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공정별작업을 기술적요구대로 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모든 농장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 농기계들이 올해 감자심기에서도 은이 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높은 열의를 발휘하여 감자심기를 질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신흥, 홍암, 신덕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의 기계화초병들은 농기계들을 눈동자와 같이 다루며 매일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감자종자보장을 맡은 농업근로자들도 영광의 땅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일손을 다그치고있다.

삼지연군, 백암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감자심기를 실속있게 하고있다. 비상한 각오안고 떨쳐나선 삼지연군의 모든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감자심기목표를 높이 세우고 집단적혁신으로 시작부터 실적을 올리고있다. 이들은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종자실어나르기를 앞세우면서 그날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기술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누구나 감자심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잘 알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군안의 농장들에서는 감자심기를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고있다.

백암군에서는 감자심기를 대홍단식과학농법의 요구대로 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함으로써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과학기술적요구대로 감자를 심도록 하고있다. 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여 감자심기에서 속도와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군에서는 농장들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고있다.

무산군, 장진군, 부전군을 비롯한 북부고산지대의 다른 군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불리한 조건을 맞받아나가면서 감자심기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박철

효능높은 의약품을 많이 생산

라남제약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약공업부문과 의료기구공업부문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구의 가지수를 늘이며 그 질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라남제약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효능높은 의약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다그치며 선진의학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최근에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비타민C생산공정과 심장혈관계통에 특효가 있는 새로운 의약품생산공정을 확립해놓았다.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효능높은 의약품을 생산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일터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비타민C생산을 맡은 직장에서는 생산조직을 짜고들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자체의 실정에 맞게 농축기와 려과기를 새롭게 제작완성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2, 3직장을 비롯한 다른 단위들에서도 대중의약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질좋은 의약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한마음안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성호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애국의 한마음안고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함흥모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장청일 찍음

경제적의의가 큰 갑문이 건설된다

온천군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입니다.》

백두산위인들의 손길아래 간석지농법의 새 력사가 펼쳐진 온천땅에 또 하나의 갑문이 건설된다.

옵지구를 사이에 두고 바다로 흐르는 일출천과 대령천의 합수목에 일떠서게 될 이 갑문건설이 가지는 경제적의의는 크다.

우선 이 지역 수백정보의 농경지에서 장마철시기 큰물과 조수에 의한 침수피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지대의 풍부한 퇴수를 모조리 잡아 서해물길말단지구에 자리잡고있는 간석지농장들의 조기급수와 부족되는 관개용수를 보충해주게 됨으로써 해마다 수천t의 알곡을 더 수확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된다. 이것은 곧 거의 3개 농장의 알곡생산량과 맞먹는것이나 같다. 일반적으로 간석지건설이 수천만㎥의 토량을 처리하여 수천정보의 땅을 얻어낸다고 할 때 근 2만㎥의 토량을 처리하여 3개 농장의 경지면적을 얻어내는것과 같은 이 공사야말로 실리있는 새땅찾기인것이다.

또한 봄부터 가을까지의 영농기간에 퇴수를 자연흐름식으로 서해물길에 넣어줌으로써 1단양수설비의 가동대수를 줄이고 년간 많은 전력을 절약할수 있으며 갑문우에 다리도 동시에 건설하여 이 지대에 륜환선도로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소금수송과 온천양어장관리운영을 비롯하여 주변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할수 있게 된다.

일찌기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 갑문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철하게 내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천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곳에 갑문을 건설할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온천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제힘으로 자기 사는 고장을 살기좋은 락원으로 꾸려갈 불같은 열의를 안고 갑문건설에 떨쳐나섰다.

많은 토량을 처리하고 세멘트, 모래 등 수천t의 자재를 먼곳에서부터 실어와야 하는 방대한 공사량에 맞게 군당위원회에서는 단계별목표를 바로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방법론있게 짜고들고있다. 김인삼, 김문학동무를 비롯한 군당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능력있는 일군들이 전투현장을 타고앉아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과 능숙한 사업전개력으로 대중을 기적창조에로 이끌어나가고있다.

공사 첫시작부터 이들은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이미 있던 낡은 구조물을 들어내고 제일 어렵다고 하는 감탕퍼내기와 기초굴착공사를 한달 남짓한 기간에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공사의 돌파구가 열리고 갑문기둥건설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는데 맞게 군당위원회에서는 자재보장대책도 적극적으로 따라세우게 하고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난 3월에 착공된 갑문건설실적은 벌써 40%계선에 이르고있다.

이 땅우에 흘러가는 물 한방울, 산골짜기의 나무 한그루도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게 하시려는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 드팀없는 신념을 안고 지금 건설자들은 2년이 걸려야 한다는 갑문공사를 올해에 무조건 끝낼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황철웅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지펴주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승리의 신심드높이 대고조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당의 전투적구호가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칠 기상을 안고 천만군민이 떨쳐나섰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앞둔 뜻깊은 올해에도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갈 드높은 결의안고 천만군민이 떨쳐나선 총진군대오의 진두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서계신다.

장장 수십성상에 달하는 혁명령도의 나날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언제나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전설적인 빨찌산식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사랑과 믿음으로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금 조국땅우에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습니다.》

부강조국건설사에 불멸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으시며 대고조건설장들을 찾고찾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현지지도는 사랑과 믿음으로 천만군민의 심장에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나가시는 절세위인의 애국헌신의 장정이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세해전 12월의 그날 몸소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다시한번 천리마를 탄 기세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올릴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이 뜨겁게 안겨온다.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이 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강선의 로동계급이 소리치며 내달려야 전국의 로동계급의 발걸음이 더 빨라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를수 있다.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안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2012년까지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

1950년대의 그때처럼 다시한번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올릴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강선의 로동계급의 심장은 쇠물마냥 끓어번지였다.

전후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조성된 난국을 타개해나가자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모습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또다시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은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활화산같이 분출시키며 온 나라에 거세차게 타번지였다.

력사의 땅 강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대고조건설장들마다에서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이끄시였다. 치렬한 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여 인민군군인들이 선군조선의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고 대고조의 기상이 나래치는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여 생산활성화의 지름길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며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결코 해당부문, 해당 단위의 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하고 과업을 주시는 실무적인 지도만이 아니였다.

우리 인민들이 일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찾아가시여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영웅적위훈창조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길이였다.

주체98(2009)년 12월 찬바람 불어치는 김철의 구내길을 걸으시며 강선에서 타오른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가 김철에서도 타오르도록 이곳 로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석달도 안되는 사이에 또다시 김철을 찾으시여 대고조의 앞장에서 나가는 이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뜻깊은 5.1절날에는 금속공업과 그 련관부문 로동계급을 혁명의 수도 평양에 불러주시여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이번 행사에 자강도로동계급이 오지 못하였는데 아무래도 자신께서 가서 축하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먼길을 달려 그들을 찾아가신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도 천만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찌는듯 한 무더위속에서 순간의 휴식도 없이 삼복철강행군길을 이어가시던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제는 잠시라도 쉬셨으면 하는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는듯싶다.

병사들과 인민들을 위해서 내가 땀을 좀 흘리는것이 무슨 큰일이겠는가. 나는 지금까지 이런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없다. 나의 병사들과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강행군을 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고 백날을 쉬는것보다 더 좋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끝없는 애국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며 사랑과 믿음으로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대혁신, 대비약의 불씨를 심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강행군현지지도,

10여년전 불꺼진 거리와 마을, 숨죽은 공장들을 뒤에 두시고 우리 장군님 쉬임없이 걷고걸으시던 조국수호의 전선길이 오늘은 무적의 총대를 앞세우고 선군조선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는 대고조건설장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이 땅우에는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동해지구의 비날론공장이 짧은 기간에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서고 온 나라에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속에 강선과 성강, 김철과 라남, 대안과 락원, 흥남과 남흥을 비롯한 나라의 중요경제전선들에서 활성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퍼지고있다.

기존상식으로 볼 때 10년은 걸려야 하는 방대한 희천발전소건설이 시작된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벌써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여 가까운 앞날에 발전소건설을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고 대계도간석지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있는 자랑스러운 현실,

승리의 신심드높이 2012년을 향하여 질풍같이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이 장엄한 현실은 사랑과 믿음으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지금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념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조국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는 선군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용 진

중소형발전소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여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의 갈피에는 해방후 외진 두메산골을 찾으시여 중소형수력발전소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던 잊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시였습니다.》

주체36(1947)년 9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양덕군의 어느 한 마을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산골마을사람들의 생활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그곳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자그마한 발전기를 차려놓고 전기를 일구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무척 흥미가 동하시는듯 어서 그곳으로 가보자고 마을농민들을 이끄시였다.

농민들은 선뜻 움직일수가 없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소달구지나 겨우 다니는 울퉁불퉁한 험한 길이였기때문이였다. 일군들도 어버이수령님께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고 거듭 말씀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날이 저물면 여기서 하루밤 자더라도 발전소는 꼭 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깊은 산골에서 자체로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불을 본다니 얼마나 장한 일인가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발전소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발전소앞에 이르시여 로동자들과 인사를 나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책임자에게 발전소를 보여줄수 있겠는가고 물으시였다. 발전소라고는 하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은것으로 하여 그는 어버이수령님께 별로 볼것이 못된다고 자기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서 보자고 하시며 발전소건물안으로 들어서시였다.

한동안 발전기를 주의깊게 살펴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디 한번 돌려보라고 이르시였다.

잠시후 발전기의 동음이 울리는것과 함께 천정에 설치된 전등에서 불이 켜지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전기로 몇호의 농가가 불을 볼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약 250호의 농가에서 불을 볼수 있다는 책임자의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동무들이 큰일을 하였다고, 이 발전소가 아주 훌륭하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발전소를 돌아보시고 밖으로 나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발전소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강에서부터 발전소까지 직선으로 굴을 뚫으면 락차고를 높이여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할수 있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자기들이 이룩해놓은 보잘것없는 창조물도 평가해주시며 앞으로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할수 있도록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발전소로동자들은 눈굽을 뜨겁게 적시였다.

격정을 금치 못하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서 전기생산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전력문제를 전망성있게 해결하자면 대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동시에 도처에 중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전기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는 산이 많고 어디에 가나 강하천이 있기때문에 중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하면 전기를 생산할수 있을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건국열의로 들끓는 현실속에서 전기화의 새싹을 발견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안광에는 기쁨의 미소가 어려있었다. 이윽토록 발전소건물을 만족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옛날부터 사람 못살 곳으로 소문난 깊은 산골마을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농민들이 전기불을 보며 살게 된것은 이 고장의 큰 경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중소형수력발전소야말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고 현실성있는 전력생산방법이라는것을 확신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력자원이 있는 모든 지방들에서 이 고장에서처럼 중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자체로 생산하여 쓰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다고 거듭 당부하시고서야 이곳을 떠나시였다.

이렇듯 나라의 전기생산을 위하여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머나먼 산골마을까지 찾아가시여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있어 우리 나라 중소형수력발전소건설의 휘황한 설계도가 펼쳐지게 되였다.

본사기자 림 정 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남아프리카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평양 5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주조 남아프리카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브헤키 윈스톤 죠수아 랑가가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외무성 부상 박길연과 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민족대단결을 위한 길에 새겨진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는 참관자들 —쑥섬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함경남도현지지도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함경남도현지지도 50돐 기념보고회가 5일 함흥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곽범기,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강형표, 도내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기념보고를 곽범기책임비서가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50(1961)년 5월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날론공장준공을 경축하면서 5월의 명절을 기념하는 함흥시군중대회에서 비날론공장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화학공업발전에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화상으로 사경에 처했던 한 소년을 소생시킨 의료일군들을 치하해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단위들을 찾으시여 생산정형과 원아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예술소조종합공연과 집단체조, 가극공연도 지도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를 보좌하시는 한편 수령님의 현지교시 관철에로 도내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도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50년간 모든 부문, 단위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생산장성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으며 지난해 3월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준공을 경축하는 함흥시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가스화대상건설이 추진되는 등 중요공장, 기업소들의 개건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여 생산의 장성을 가져온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공업, 수산업, 교육, 보건, 문학예술부문에서 성과가 이룩되고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가 달라졌으며 일터마다에 혁명적기백과 랑만이 차넘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홍남가스화대상공사를 다그쳐 끝내고 함흥지구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며 경공업과 농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과 알곡생산을 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덕성실기발표모임을 통한 위대성교양

령대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탄부들이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보여주는 덕성실기에 대한 발표모임을 현실과 결부하여 실효성있게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또한 초급일군들과 학습강사들의 역할을 높여 덕성실기의 내용을 깊이 연구학습한데 기초하여 정치사상사업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탄부들로 하여금 높은 정신력을 발휘하여 맡은 일에서 비약적성과를 달성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얼마전 운반갱 당조직에서는 덕성실기 《〈나도 작업반의 한 성원입니다〉》, 《몸소 26호선반을 돌리시며》에 대한 발표모임을 진행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설비관리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모든 설비들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애호관리하여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할 결의를 다지였다.

이날에 진행된 덕성실기발표모임은 사람들속에서 큰 실효를 나타냈다.

지금 이곳 탄광의 당원들과 탄부들은 석탄이 쾅쾅 나와야 비료와 섬유도 쏟아지고 전기와 강재도 나온다고 한 올해공동사설에 담겨진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맡은 일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봉 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혁명적동지애로

박 영 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내가 속한 소부대가 처창즈유격근거지에로 행군해가던 때의 일이다.

1933년 가을.

어느날 밤, 우리 부대는 험산속에서 고된 행군을 하다가 적의 포위속에 들었다. 사방에서 쏘아대는 적들의 총탄이 일시에 우리에게로 쏠렸다.

위급한 순간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어둠속에서 신속히 지형지물들을 리용하면서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였다.

부대는 안전한 곳에서 대오를 정돈하였다.

이때에 우리는 2명의 전우들이 대오를 찾아오지 못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다음날 몇명의 대원들이 돌아오지 못한 두 동무의 소식을 알려고 떠났다. 그들은 부대가 포위되였던 산지대를 낱낱이 뒤지였다. 바위틈, 덤불속, 골짜기를 죄다 찾았으나 두 동무의 행방은 알길이 없었다. 이리하여 부대는 2명의 전우를 잃은채 행군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6일이 지난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였다.

두 전우는 부대가 적들에게 포위된 그날밤에 중상을 입었었다.

한 대원인 장원동무는 왼팔에 상처를 입었고 또 한 대원인 리동무는 다리에 중상을 입었다. 부상당한 순간 그들은 골짜기로 굴러떨어졌다. 이리하여 그들은 대오를 잃게 되였다.

얼마후 장원동무는 의식을 차렸다.

(나 혼자일가?) 하고 그는 귀를 도사리였다.

그런데 멀어져가는 총소리가 멈춰질 때마다 가까이에서 모진 고통에 가늘게 신음하는 인기척이 들려왔다.

장원동무는 인기척이 나는 곳으로 기여갔다. 그는 엎드려서 나무뿌리를 거머쥐고 힘겹게 몸을 뒤적이는 리동무를 알아보았다.

장원동무는 얼른 자기의 속내의를 찢어서 피흐르는 리동무의 다리를 동여매주었다. 손이 아니라 이 발로써… 의식이 회복된 리동무 역시 내의를 찢어 관통상을 입은 장원동무의 팔을 동여주었다.

《리동무, 나에게 업히우오.》 장원동무는 전우를 부축이면서 타일렀다.

그 동무는 고통어린 얼굴에 간신히 미소를 띠고 말했다.

《나는 못 가오. 갈수가 없소. 동무도 상한 몸이니 나를 업고가려다간 둘 다 못 가고마오.》

리동무는 숨을 몰아쉬고 장원동무의 손을 꽉 그러쥐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난 아무래도 못 갈 몸이니 나를 제발 죽여주오. 원쑤의 손에 잡히기보다는 혁명동지앞에서 숨지는것이 행복이요. 빨리.》

그러나 장원동무는 거의 강다짐으로 리동무를 업고 비틀거리면서 걸음을 내디디였다.

가고 또 갔다. 돌에 채워 어푸러지기도 하고 기진하여 쓰러지기도 하면서 걸어갔다.

그들에게 원쑤 일제를 족치는 투사라는 자각이 없었던들, 강요된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서 원쑤와 싸워야 한다는 굳은 신념이 없었던들 그들은 한걸음도 옮길수 없었을것이다.

그들은 오직 일제를 타도하려는 하나의 투쟁목적으로 하여 한심장으로 숨쉬였다.

그들은 점점 힘이 진하였다. 이제는 걷는다기보다도 땅을 아득바득 톺아나가게 되였다. 게다가 굶주려서 허기증까지 났다.

그들은 지어 산짐승이 먹다버린 썩은 노루고기를 만났을 때 그것이 별식만 같아서 서로 권하였다.

때로는 산돼지들이 뚜져먹은 벌둥지의 꿀송이들을 주어먹기도 하였고 그 꿀을 서로 상처에 발라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간난신고를 겪으면서 그들은 6일간이나 유격근거지를 향해서 헤매였다.

어느날 처창즈유격근거지의 보초가 그들을 발견하였다.

동무들이 그들을 밀영으로 업어왔다.

그러나 리동무는 간신히 《장동무, 살아있소?》 하고 한마디 물은 다음 《살아있다.》는 대답을 듣자 얼굴에 안도의 미소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장원동무도 의식을 잃었다.

그들을 바라보는 전우들은 숭고한 동지애, 불굴의 투지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렇듯 항일유격대내에서 대원들은 한형제와도 같이 살았다. 우리는 한알의 감자를 열로 쪼개였으며 한줌의 담배도 나누어피웠다.

어찌다 받게 되는 군복도 내의도 서로 동지에게 양보하였고 전우를 위해 도움을 주는것을 누구나없이 기뻐하였다.

전투에서 한 동무가 중상이라도 당하면 다른 동무가 우박치듯 퍼붓는 총탄속을 뚫고들어가 그를 희생적으로 구원해내였다.

무송현 만강으로 가는 초처정자라는 곳에 우리의 림시병원이 있었다. 거기서는 리오남동무가 의사로서 여러명의 환자들을 치료하고있었다.

1937년 봄, 어느날 나는 련락병 복남동무와 함께 환자들의 병세를 알아보려고 험준한 산속에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다.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병원은 간데 없고 집터전엔 숯과 재만 있었다. 《토벌대》놈들이 불태운것이 분명하였다.

나와 복남동무는 알길이 없는 병원환자동무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곳을 떠났다.

강가에 다달았다. 무심히 숲속을 헤치고 강가를 내다보았을 때 수척한 두사람이 겨우 몸을 움직이면서 가재잡이를 하고있었다.

그들은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였다.

우리가 그들에게로 갔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반가와하며 우리 목에 매여달렸다.

병원이 원쑤들의 습격을 받은 이후 그들은 며칠씩이나 가재를 잡아먹으면서 살았다는것이였다.

《조반장》은 원쑤들이 병원을 습격하는 순간에 한 동무가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를 업어나르지 않았던들 자기는 영낙없이 죽었을것이라고 감격에 싸여 말하였다.

나는 《조반장》의 상처를 보고 놀랐다. 허벅다리의 상처가 심하게 곪고있었다. 출혈과 상처의 아픔, 가슴을 허비는 허기증을 참는 그의 이마의 주름살에는 땀이 송글송글 나있었다.

그러나 그는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고 동무들을 위안하려고 쳐다볼때마다 얼굴에 어설픈 웃음을 띠였다. 이것이 더욱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그들의 곤경을 보고 더 지체할수 없었던 나는 머나먼 길을 달려가서 부대에서 식량을 가지고 그길로 다시 환자들에게로 뛰여왔다.

그때 《조반장》이 말하였다.

《난 정말 살고싶소. 싸우고싶소. 일제놈들이 없는 우리 세상을 보고싶소.》

《조반장》의 눈에 열기가 올랐었다.

입술은 푸들푸들 떨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더니 다시금 말을 이었다.

《난 살지 못하오. 그러나 난 헛되이 살지 않았소. 나라를 되찾을때 내가 흘린 피도 추억해주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그를 부여안고 울었다. 우리는 그를 업고 30리가 넘는 길 아닌 길을 헤치고 만강무기수리소가 있는 곳에 다달았다.

《조반장》은 거기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일제놈들은 심산속에 있는 이 만강무기수리소를 알아내고 불의에 습격해왔다.

모두들 무기와 기타 설비들을 걷어가지고 신속히 피신하였다. 그러나 병실에 누워있던 《조반장》은 미처 피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모두들 높은 산마루에 올라가서 협곡에 자리잡은 무기수리소를 내려다보았다. 일제놈들은 닥치는대로 불지르고 총을 쏘며 날뛰고있었다.

2~3명의 대원들이 《조반장》을 구원하려고 협곡으로 내리뛰였다.

그 순간 무기수리소에서 무서운 폭음이 울렸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만든 폭탄소리였다.

우리는 급히 무기수리소로 달려내려갔다. 《조반장》이 들어있던 병실은 무너지고 사처에 흙무더기만이 널려있었다.

무너져내린 흙과 나무들을 헤쳤을 때 거기에는 전사한 《조반장》이 있었고 그의 주위에 적들의 시체가 널려있었다.

모든것을 알수 있었다. 《조반장》을 생포하려고 적들이 무리를 지어 병실에 몰려든 순간 《조반장》은 품고있던 폭탄을 터친것이였다.

환자로서 죽음의 순간까지 원쑤를 쳐부신 《조반장》, 그는 자신이 말한대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둘도 없는 생명을 서슴없이 바친것이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항일유격대내에서 우리의 굳은 단결과 혁명적동지애는 불보다 뜨거웠고 강철보다 억세였다.

산림보호사업을 군중적으로 힘있게 내밀자

산림감독원들의 역할을 높여

벽성군산림경영소에서

벽성군을 찾는 사람들은 푸른 숲이 우거진 산들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이 푸른 숲에는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데 대한 당의 원대한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산림보호이자 산림조성이라는 관점에서 고향산천에 성실한 땀을 바쳐온 군산림경영소일군들과 산림감독원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산림을 잘 보호하는것은 산림조성사업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지난 기간 군에서는 해마다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한 사업을 군중적으로 힘있게 내밀었다. 그 결과 수천정보의 산들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심어졌다. 하지만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하여 산림조성사업이 끝나는것은 아니였다.

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은 산림보호사업을 더욱 잘하기 위한 작전을 펴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어도 산림감독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높지 못하면 산림자원을 늘일수 없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은 산림감독원들과의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그들은 우선 산림감독원들이 자기가 담당한 산림자원을 환히 알뿐만아니라 산불과 병해충에 의한 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산을 끼고있는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산림감독원들과의 련계밑에 산림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산림감독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인 결과 군에서는 산림보호사업이 잘되고 산림자원이 늘어나고있다.

상림지구의 산들을 놓고보자. 지금 이 지구에는 수백정보의 산림이 있다. 잣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나무들이 수림을 이루고있는 산들은 이 지구의 산림을 담당한 감독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얼마나 높은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산마다 《산림애호》, 《산불방지》라는 글발이 곳곳에 나붙어있는 사실만 보아도 산림감독원들만이 아닌 이 지구의 사람들모두가 산림의 주인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이곳 산림감독원들은 산을 리용하는 주민들속에 산림보호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려나갔다. 또한 산림이 가져다주는 혜택, 산림이 피해를 입을 때 빚어지는 후과에 대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소개선전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나 산림보호사업을 잘하는것이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새기고 이 사업에 언제나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였다.

석담지구의 산들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숲을 이룬것도 산림감독원들의 높은 책임성과 역할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지금 이 지구의 산들에는 곳곳에 산불막이선들이 있다.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 더 번져지지 못하도록 품을 들여 보수해놓은 산불막이선들마다에도 이곳 사람들의 뜨거운 향토애가 비껴있다.

그뿐이 아니다.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동원체계도 빈틈없이 세우고 성냥을 비롯한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것과 같은 현상들이 없도록 엄격한 질서도 세워놓았다.

다른 지구의 산림감독원들도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산림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모두가 떨쳐나 산림보호사업을 주인답게 하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심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가 잘되여 사름률이 높은것은 물론 산림자원이 늘어나 좋았다. 이처럼 늘어나는 산림에서 건설에 필요한 목재와 여러가지 영농자재감도 나오고 큰물로부터 농경지도 보호되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지금 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산림감독원들은 뜨거운 애국심을 지니고 산림보호사업에 보다 큰 힘을 집중하고있다.

본사기자 강명근

심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무를 많이 심는것과 함께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강성대국건설의 귀중한 밑천이다. 산에 나무를 많이 심는것과 함께 심은 나무를 잘 관리하는것은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는데서 심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똑똑히 알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대중속에 심은 나무들을 잘 관리하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해설해주어 모두가 주인답게 일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새로 심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한다. 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해도 관리사업을 잘하지 못하여 사름률이 떨어지면 품을 들여 노력한 보람이 없어진다.

봄철은 겨울을 난 여러가지 풀과 나무들이 땅속의 영양물질들을 빨아들이면서 자라는 시기이다. 이미 뿌리를 내린 풀과 잡관목들이 무성해지면 새로 심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들은 죽거나 잘 자랄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새로 심은 나무들이 뿌리를 왕성하게 내리면서 잘 자라나도록 김도 매고 잡관목도 없애야 한다.

병해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나무소독사업을 철저히 하여 해로운 벌레들이 발생하거나 퍼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리로운 동물들과 곤충들을 적극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사업도 잘해야 한다.

산림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각지 산림경영소의 일군들은 대중속에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여야 한다. 특히 새로 심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또한 식물검역체계를 바로세우고 예찰사업을 강화하여 한그루의 나무도 병해충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림감독원들은 담당한 산림구역들에 대한 순찰을 정상적으로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새로 심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학교와 가정들에서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새로 심은 나무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도록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고 심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사업을 잘해나감으로써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자.

애국의 마음 안고

북창군에서

북창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애국의 뜨거운 마음안고 산림을 잘 보호하고있다. 군의 일군들은 산불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고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생길수 있는 봄철의 특성에 맞게 산림보호사업을 잘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대중속에 들어간 일군들은 산림보호관리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해설해주면서 그들이 적극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특히 산림감독원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산불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에 군적인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군에서는 산불감시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산불감시원, 산림순시원들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입산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산불막이선들에 있는 마른 나무잎과 풀을 말끔히 걷어냄으로써 자그마한 산불요소도 없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병해충에 의한 산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도 예견성있게 내밀고있다. 군산림경영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산림보호사업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있다. 인포, 송남, 옥천, 읍지구를 담당한 산림감독원들은 산림조성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심은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하고있다.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군의 산림보호관리사업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주창일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경제선동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전국 시, 군(구역)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집중경제선동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락랑—력포지구와 시내 중심지구를 비롯한 여러 살림집건설장들에 달려나간 만경대구역과 옹진, 태탄, 통천군과 순천시, 희천시를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달려온 여러 단위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집중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건설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문화성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모든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수도건설부문에 깃든 우리 당의 령도업적을 널리 해설선전하고 당면한 살림집건설을 최단기간에 다그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김영철, 리영민동무들을 비롯한 문화성의 일군들은 집중경제선동경연을 위한 조항들을 면밀히 작성하고 한개 단위씩 맡고 현장에 나가 기동예술선동대들의 활동을 능숙하게 조직지휘하고있다.

각지에서 달려온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수도의 살림집건설에 이바지한다는 긍지를 안고 현장을 진감하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리고있다. 만경대구역과 옹진군, 순천시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박력있는 경제선동활동으로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만경대구역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모두가 높은 기량을 소유한데 기초하여 다양한 선동형식과 방법을 탐구하고 실천에 적극 구현하여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옹진군과 순천시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옹진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지난 기간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온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하루 5회이상의 경제선동활동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이들은 경제선동을 실감있게 진행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방송선전차를 통한 선동과 직관선동을 밀접히 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건설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이들은 건설자들에게 로동보호물자도 안겨주고 자동차운전사들과 함께 수송길에 올라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순천시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진취적인 경제선동활동도 건설자들의 감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들은 오늘의 대고조진군길에서 진격의 나팔수가 될 결의드높이 일별, 시간별경제선동활동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전투적인 노래와 호소성이 강한 종목들로 선동활동을 낮에 밤을 이어가면서 진행하여 건설자들을 끊임없이 분발시키고있다.

태탄군과 황주군, 통천군과 문천시, 희천시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기동예술선동대들도 수도의 살림집건설장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리고있다. 집중경제선동활동은 수도건설에 필요한 자재생산보장을 맡은 련관단위들에 달려나간 천리마구역과 회령시, 김책제철련합기업소기동예술선동대들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한편 내각사무국과 여러 시, 군당위원회, 해당 단위 일군들은 수도의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사업과 생활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게 하고있다.

새로운 평양속도창조로 들끓는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참신하고 혁명적인 집중경제선동공세로 하여 수도의 살림집건설장에서는 지금 공사실적이 날마다 뛰여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살림집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리진명 찍음

현대화를 다그쳐 전력생산을 늘인다

위원발전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원발전소에서 전력생산과 지휘의 과학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최첨단돌파전에 떨쳐나선 발전소의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전으로 전력생산과 지휘를 과학화, 정보화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그 수행을 위하여 발전소의 일군들은 기술발전과, 전기실험실, 콤퓨터실의 능력있는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로 기술혁신돌격대를 무었다.

일군들은 전력공업성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십여대의 현대적설비들과 갖가지 수감요소들, 측정계기들을 비롯한 많은 자동화요소들을 마련하였다. 1년 4개월 남짓한 기간에 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전력공업성의 기술일군들, 희천공업대학, 강계공업대학의 연구사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발전기려자전압조종에 필요한 프로그람을 비롯하여 발전설비들의 가동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믿음직하게 보호할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람들을 개발하였다. 또한 수십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 창의고안,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여 4호발전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지배인 박창수동무를 비롯한 발전소의 일군들은 4호발전설비들을 현대화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발전소의 모든 발전설비들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일군들과 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발전설비들을 자동조종할수 있게 콤퓨터조종실을 현대적으로 새로 꾸리였다. 동시에 발전설비들과 수력구조물들에 현대적인 수감요소들과 측정, 감시수단들을 설치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발전소에서는 구내에 새로 건설한 기능공학교의 실습실에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갖추어놓기 위한 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보천5호발전소에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보천5호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전력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매달 전력생산계획을 완수한 이들은 이달에도 발전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전력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발전소의 일군들은 전력증산을 위한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그리고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전력생산계통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발전소의 종업원들은 발전설비들의 운전조작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면서 설비들의 기술상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할수 있게 하는 기술개조사업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이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도중취수구들에 대한 보수와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그리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발전설비들에 대한 보수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고있다.

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부속품과 공구, 지구들을 그쯘하게 갖추어놓고 설비점검보수를 깐지게 하고있으며 높은 수위, 높은 효률운전으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본사기자 리명일 찍음

농업과 경공업부문에 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

신의주시당위원회에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신의주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터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신의주시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농업과 경공업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올해전투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공격전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혁명의 지휘성원인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시당위원회일군들은 당면한 봄철영농전투에로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고있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은 농업생산에서 전환이 일어나야 경공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부문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당면한 봄철영농전투가 벌어지는 전투현장들에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정치사업자료와 방송편집물들을 기동적으로 준비하고 모든 선전선동력량을 동원하여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나감으로써 시안의 협동농장들이 당면한 영농전투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농장들에 나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는 한편 모든 선동력량을 영농전투장들에 집중시키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급기관은 물론 공장, 기업소, 동, 인민반들 어디서나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7만여t의 거름을 생산하여 협동농장포전들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인민위원회에서는 뜨락또르부속품과 비닐박막, 중소농기구들은 물론 많은 비료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고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씨뿌리기를 질적으로 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이에 고무된 시안의 협동농장들의 농업근로자들은 거름생산이자 알곡생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흙보산비료생산과 생물활성퇴비생산, 흙구이를 다그쳐 모든 포전들에 유기질거름을 정보당 수십t이상 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종자처리를 앞세우고 방풍나래, 활창대 등 모판자재를 확보한데 이어 모내는기계와 양수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와 수십km의 관개수로보수 및 물길가시기를 끝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농장들에서 뜨락또르출동식과 부림소품평회를 실속있게 하고 당면한 봄철영농전투에 진입하여 매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얼마전 시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은 농업부문 일군협의회를 열고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키고 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고나가 영농전투지휘를 잘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책임일군은 석하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에 나가 해당 부문 일군들과 함께 실태를 알아보고 피스톤, 착통을 비롯한 15종에 150여점의 뜨락또르부속품들과 수십t의 철판을 보장해주도록 하였으며 직접 팔을 걷고 운전수들과 함께 뜨락또르를 수리하는 실천적모범을 보이였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농업부문 일군들은 본보기분조, 본보기작업반, 본보기농장들을 꾸리고 그 단위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연하협동농장에서 씨뿌리기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시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이 씨뿌리기전투에 일제히 진입하도록 하였다. 시당위원회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송한협동농장을 현대적인 과수농장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시에서는 력량을 집중하여 1단계로 50여정보, 2단계로 100여정보의 포전에 키낮은사과나무를 심기 위한 투쟁을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경공업공장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들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신의주기초식품공장에서는 콤퓨터에 의한 장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추진되고 신의주종이공장에서는 표백공정을 현대화하여 질좋은 종이로 만든 학습장을 학생들에게 공급해줄수 있게 하고있다. 신의주영예군인문화일용품공장에서는 기술을 혁신하여 비누생산설비를 새로 설치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고있으며 신의주초물생산협동조합에서는 염색공정에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질좋은 초물제품들을 팡팡 생산하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군중적으로 많은 파지와 파비닐 등 유휴자재를 수집하여 경공업공장들과 지방공업공장들에 보내주도록 하였다. 일군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시안의 모든 전투장들마다에서는 총돌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예비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남포수산사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일군들이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다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높은 정치적열성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남포수산사업소 당위원회 비서 안정혁동무는 어구준비작업반의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 큰 충격을 받은적이 있었다. 어구가 긴장해지자 많은 로동자들이 집에 갈념을 하지 않고 그물을 뜨는 모습을 보았던것이다.

하루책임량을 못해서가 아니였다.

집단의 리익속에 개인의 명예도 리익도 있다는 자각을 안고 두몫, 세몫 일하는 그들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그럴수록 로동에 대한 평가와 보수를 적극 따라세워 대중의 생산열의를 더욱 높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생산의 비약적인 장성을 안아오는 중요한 열쇠의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것이다.

그날 저녁 당위원회일군은 지배인 강경수동무와 무릎을 마주하였다. 로력일에 대한 총화와 평가사업에서 놓친 점은 무엇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토의하기 위해서였다. 구체적으로 파고들고보니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있었다.

물고기잡이에 직접 참가하는 어로공들은 많이 내세우면서 보장부문의 종업원들에 대한 물질적평가사업은 소홀히 한것이 그 한 실례였다. 그러다보니 그 단위의 종업원들속에서 자각적이고 주동적인 역할을 더 높이지 못하고있는 사실도 나타났던것이다. 사업소적으로 어구가 미처 보장되지 못해 물고기떼를 놓친적도 있었다.

풍어는 뭍에서부터 오며 보장부문 단위의 역할이자 물고기잡이실적이다. 이것을 새삼스럽게 자각한 사업소의 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의 정치화를 더 잘 실현하는 방법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할 결심을 굳히였다. 그 본보기단위로 가공작업반이 선정되였다.

이튿날 이 단위에 나간 당위원회일군은 단위의 초급일군들로 하여금 일감과 작업분담을 명백하게 주며 로동의 결과에 따라 질량평가를 제때에 정확히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경쟁도표를 갖추어놓고 그 운영을 잘하는 한편 윤정순, 구현옥동무와 같이 실적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등록장에 등록, 소개선전하는 사업, 물질적평가사업도 잘하게 하였다.

이것이 큰 은을 내기 시작하였다.

일한것만큼 차례지게 하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이 옳게 실시되자 작업반원들의 생산의욕, 자각성과 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더운 땀을 뿌릴수록, 물고기가공을 더 잘할수록 사업소가 흥하고 나라살림, 자기 살림이 유족해진다는것을 실지로 느꼈던것이다.

당위원회는 이 단위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였다. 이렇게 되자 온 사업소가 불도가니마냥 더욱더 부글부글 끓었다. 물고기잡이에서는 전례없는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당위원회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에 의해 사업소가 오늘에 와서는 높은 실적을 내는 사업소로 비약적인 성과를 안아오게 되였다.

행정경제사업의 정치화, 생산장성의 큰 예비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그 시범을 창조해주신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비롯한 행정경제사업의 공간들이 대중의 생산의욕을 북돋아주고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될 때 어디서나 혁신이 일어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전경서

온 나라가 사랑하는 대고조시대 애국로동의 발기자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녀성파외지원대 대장 한옥련동무에 대한 이야기

얼마전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녀성파외지원대의 활동에 대하여 다시금 료해하시고 평범하던 김철의 녀성들이 온 나라가 사랑하는 영웅적위훈의 주인공들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한옥련동무를 비롯한 녀성파외지원대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습니다.》

우리 장군님으로부터 파외지원대에 스스로 탄원하여 그 어떤 대가도 바람이 없이 애국의 땀과 열정을 바쳐온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보아도 조선녀성들이 지닌 숭고한 애국심이 얼마나 열렬하고 뜨거운가를 잘 알수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아안은 김철의 녀성파외지원대원들,

한옥련동무는 바로 이 녀성파외지원대의 대장이며 오늘 김철의 녀성들속에서 대중적으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애국로동인 파외지원로동의 발기자이다.

주체철과 더불어 김철의 대고조력사에 새겨진 한 녀성의 애국헌신의 자욱은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인민이 얼마나 훌륭한 인민이며 선군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차게 떠밀고나가는 조선녀성들이 어떤 숭고한 정신세계의 소유자들인가를 뜨겁게 전하고있다.

심장이 가리키는 길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은 당에서 바라고 조국이 요구하는 일에 스스로 뛰여들어 한몸을 아낌없이 바치는 희생적인 투쟁속에 있다.

한옥련동무는 순결한 당적량심과 진실한 애국의 마음으로 파외지원로동을 발기하고 김철에서 주체철생산체계를 확립하며 철강재생산을 부단히 늘이는데 이바지한 참된 당원, 참된 애국자이다.

그는 처녀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년간 김철에서 로동자로 일하고있다. 주부이고 어머니인 그는 하루일이 끝나면 다른 녀성들처럼 가정을 돌보아야 하고 자식들도 키워야 하였다. 그러나 한옥련동무는 맡겨진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것으로써 자기 할바를 다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주체철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삶의 진정한 기쁨도, 가정의 행복도 찾으면서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김철로동계급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철의 로동계급에게 강선의 봉화를 김철의 불길로 이어가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못 잊을 그해 12월의 어느날이였다. 한옥련동무는 주체철용광로가 바라보이는 곳에 남편과 함께 서있었다.

《얼마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다문 며칠동안이라도 안정치료를 받아야지 그몸으로 어떻게 파외지원로동을 계속하겠소?》

남편인 최상록동무의 말이였다.

순간 한옥련동무의 눈에는 눈물이 핑 고이였다.

불현듯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고 온 나라가 피눈물의 바다에서 몸부림치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내 그때 장군님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는데 이 한몸 아낌없이 바칠것을 굳게 맹세하지 않았던가.)

그의 뇌리에는 15년전 피눈물을 삼키며 파외지원로동의 첫걸음을 떼던 때의 일이 어제런듯 떠올랐다. 그 길에서 당원의 영예를 지니던 일도 가슴뜨겁게 돌이켜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김철을 대고조의 선봉에 세워주시였는데 자기 건강부터 먼저 생각한다면 제가 무슨 당원이겠어요.》

최상록동무는 뜨거운것을 삼키면서 안해의 등을 떠밀었다. 한옥련동무는 용광로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파외지원로동의 첫걸음을 떼던 날에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불렀다.

내 인생 꽃피워준 그 은정 못 잊어
언제나 새벽길 남먼저 걷네
당을 향한 그 마음 티없이 맑고 맑은
아 량심의 인간 나는 되리라
…

자기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이 노래를 부르며 한옥련동무는 그날 저녁부터 또다시 하루일을 마치면 어렵고 힘든 일터에 찾아가 새로운 대고조의 앞장에서 철강재생산투쟁을 벌리는 로동자들의 일손을 도와주고 쉴참에는 집에서 해온 음식도 권하며 고무해주었다.

보수2직장의 한 녀성로동자가 매일 파외지원로동을 한다는 말은 기업소에 파다하게 퍼지였다. 그러자 이 직장, 저 직장에서 녀성들이 저저마다 그를 따라나섰다.

—우리도 애국로동, 파외지원로동에 참가하여 주체철생산에 적극 이바지하자!

—강철로 당을 받드는 김철의 모습을 우리 녀성들이 더 아름답게 장식하자!

한옥련동무는 파외지원로동에 합세한 녀성들과 함께 얼마후 당위원회에 찾아가 정식 녀성파외지원대를 무어줄것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김철에서는 녀성파외지원대가 조직되고 한옥련동무는 대장으로 임명되였다. 소대들이 편성되고 대오에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녀성파외지원대》라고 쓴 붉은 기발도 수여되였다.

《세상에 이런 녀성지원자부대는 없을거요. 우리 김철의 파외지원대는 우리 나라에서만 생겨날수 있는 녀성애국자부대요.》

파외지원대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며 련합기업소책임일군이 하는 그 말에 한옥련동무는 저도모르게 눈시울이 달아올랐다. 그는 지원대원들을 정깊은 눈길로 둘러보았다. 얼마나 훌륭한 우리 김철의 녀성들인가.

참되고 고결한것만을 따르며 닮는것이 바로 우리 인민이라는 생각이 그의 가슴속에 새삼스럽게 갈마들었다.

한옥련동무는 낮에는 자기 직장에서, 저녁에는 파외지원대오를 이끌고 억척같이 일해나갔다. 지원대원들이 일을 끝내고 돌아간 다음에도 그들속에서 발양된 긍정적소행을 전투기록장에 기록하고 다음날 소대별전투조직까지 하고나면 밤을 새울 때가 드문하였다. 그러한 그에게 하루는 지원대의 한 소대장이 근심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저는 아직 작업반장도 해본적이 없는데… 제가 소대장일을 꽤 해낼가요?》

한옥련동무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별소릴 다, 평범한 로동자인 난 경험이 있어 대장사업을 맡았어요?》

그리고는 생각에 잠기였다가 이렇게 말을 이었다.

《이 땅엔 로동계급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올해 대고조의 선봉에 우리 김철의 로동계급을 세워주시였어요. 우리는 김철의 로동계급이다! 이걸 잊지 않으면 돼요.》

김철의 로동계급!

한옥련동무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시는 김철로동계급의 모습이 소중히 간직되여있었다. 전후의 그 어렵던 나날에 19만t의 선철밖에 뽑을수 없다고 하던 용광로에서 27만t의 선철을 뽑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던 김철의 로동계급,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을 고난의 시기 해탄로의 불만은 죽일수 없다고 하면서 가족들까지 떨쳐나서 해탄로를 비롯한 설비들을 지켜낸 김철의 로동계급,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강재증산으로 당중앙을 옹위하고 자립적민족경제축성과 사회주의건설에 거대한 공헌을 한 김철의 로동계급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항상 굳게 믿고계시기에 주체철생산에 한몸바칠 의지로 한옥련동무의 심장은 쿵쿵 높뛰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대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자면 우리 김철이 용을 써야 하며 맡겨진 일을 하는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애국의 땀을 바치고 바치여 더 많은 쇠물이 쏟아지게 해야 한다.)

한옥련동무는 이런 결심을 품고 파외지원대기발을 더 높이 추켜들었다. 지원대원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는 혁신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번지였고 그들의 노래와 춤과 웃음은 철의 도시에 새로운 활기를 부어주었다. 그러한 그들에게 책임일군이 매일 두 교대에 맞먹는 일을 하자니 얼마나 힘들겠는가고, 파외지원로동을 한주일에 뒤번만 하는것이 어떻겠는가고 하였다. 그때 한옥련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스로 하는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항일의 녀투사들이 천신만고를 이겨내며 조국해방의 날까지 굴함없이 싸울수 있은것은 수령님을 따라 스스로 항일의 길에 나섰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한옥련동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파외지원대를 이끌고 생산현장들에 달려나가 애국의 땀을 바치여 지난해 김철에서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고 당창건 65돐전으로 년간 철강재생산계획을 완수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온 기업소가 명절날처럼 흥성이던 그날 한옥련동무는 철의 도시 하늘가에 세차게 휘날리는 녀성파외지원대기발을 깊은 감회속에 바라보며 이렇게 속다짐하였다.

(심장이 가리키는 애국의 이 길을 한생토록 힘차게 걸으리라.)

그리움의 대오

집단적혁신과 대중적영웅주의는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진 대오의 정신력에서 분출한다.

한옥련동무는 김철의 녀성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과 혁명, 시대앞에 지닌 로동계급의 사명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어 우리 시대 인간개조에서의 또 하나의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날마다 저녁무렵이면 붉은기를 휘날리며 생산현장들을 찾아가는 녀성파외지원대를 가리켜 사람들은 기업소의 자랑, 힘있는 집단이라고 부른다.

힘있는 집단, 사실 녀성파외지원대는 1 500여명의 집단으로서 그 인원수가 큰 기업소의 종업원수와 맞먹는다. 그렇다고 하여 그 인원수에 파외지원대의 전투력이나 창조적힘이 있는것은 아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속에 그들의 단결력과 집단적혁신, 대중적영웅주의의 뿌리가 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이 세상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생각하면 쓰러졌다가도 일어서게 되고 대장으로부터 대원에 이르기까지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속에 살면 그것이 단합이고 그보다 더 큰 힘이 없다.

한옥련동무는 녀성파외지원대가 조직된 날부터 이렇게 말하면서 지원대원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속에 살도록 이끌어주고 혁신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킨 기수이며 교양자이다.

철을 다루고 불을 다루는 김철에서 파외지원로동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한옥련동무가 녀성의 몸으로 더우기 병으로 인한 육체적고통을 이겨내면서 대원들과 함께 온 나라가 사랑하는 영웅적위훈의 주인공들로 성장할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웠기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지원대원 한명한명은 다 그리움의 대오에 함께 선 동지였고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뭉쳐진 한식솔이였다.

어느날 한옥련동무는 벽돌운반작업에 참가한 한 소대의 작업총화모임에 참가하게 되였다. 모임에서 소대장은 오늘 다른 소대들에 뒤졌는데 래일 작업에서는 꼭 앞서야 되겠다고 하면서 벽돌을 많이 나른 대원들순서로 이름을 부르며 실적평가를 하였다. 한옥련동무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소대장과 걸음을 같이하였다.

《소대장동무, 제 생각엔 오늘 총화모임이 잘된것 같지 않군요.》

그러면서 한옥련동무는 우리 지원대원들중에는 로동자들도 있고 사무원들도 적지 않다, 나이도 서로 다르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우리 지원대원들은 모두가 어버이장군님의 어깨우에 실리는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는 마음을 안고 이 길에 스스로 나선 사람들이 아닙니까. 나는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대원들을 이끌어나간다면 소대는 불가능을 모르는 무서운 힘을 발휘할것이라고 생각해요.》

한옥련동무는 다음날 그 소대에서 일하면서 대원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덕성과 풍모를 담은 혁명일화들을 들려주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진두에서 낮이나 밤이나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장군님의 강행군속도에 마음과 걸음을 합쳐가자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그의 이러한 호소는 소대원들속에서 놀라운 정신력을 폭발시키였으며 작업장에 혁신의 열풍이 일어번지게 하였다.

언제인가 이런 일도 있었다. 그날 한옥련동무는 한 소대가 맡은 일을 다하고도 연료부림작업을 스스로 맡아나섰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갔던 한옥련동무는 철길우에 널린 연료를 보며 생각이 많았다. 한옥련동무는 말없이 삽을 들고 그것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한 대원이 변명하듯이 화차에서 연료를 부리우면서 조금 흘릴수 있지 않는가고 하였다. 그 말에 한옥련동무는 신중한 낯빛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물론 깊은 밤 외진 곳에서 일하는 동무들을 지켜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대고조의 선봉에 우리 김철로동계급을 세워주신 장군님께서만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계신다고 생각해야 해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 김철로동계급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장군님의 마음속에 살아야 한다고, 티없이 순결한 마음이란 바로 자나깨나 장군님을 그리는 마음이 아니겠는가고 뜨겁게 말하였다.

한옥련동무의 마음은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달리였으며 그는 바로 그 마음으로 대원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며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달리였다. 그는 대원들과 함께 천수백t의 벽돌을 재생하여 열간압연직장현대화공사장에 보내주었고 소결직장에 필요한 원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깊은 원료저장통에 주저없이 들어가기도 하였다.

기업소에서는 이러한 녀성파외지원대원들의 투쟁에 대하여 널리 소개하였다. 그럴수록 파외지원대에 탄원하는 녀성들이 많아졌다. 한옥련동무는 기뻤다. 파외지원대오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철강재생산이 높아질것이고 강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질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더 많은 녀성들이 파외지원로동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늘 수심에 잠겨있는 관망보수직장의 한 녀성로동자를 보게 되였다. 알고보니 그는 한때 일을 잘하지 못하여 사람들의 말밥에 오른 녀성이였다. 눈물을 머금고 자기도 파외지원대에 망라되고 싶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다는 말을 들은 한옥련동무는 그의 손을 따뜻이 감싸쥐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파외지원로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깨우에 실리는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김철의 녀성들이 스스로 달려나와 하는 애국로동이예요.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하든 장군님만 굳게 믿고 장군님 따라 대고조의 길을 우리 함께 끗끗이 걸어가자요.》

한옥련동무는 그 녀성이 파외지원대에 들어온 다음에도 몇번이나 그의 집에 찾아가 친언니의 심정으로 살림살이도 보살펴주고 그가 락천적으로 생활하도록 파외지원대의 예술소조책임자로 내세워주며 깊이 마음을 썼다.

한옥련동무의 이렇듯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교양에 의하여 그 녀성은 얼마전 당원으로, 직장의 초급직맹일군으로 성장하였다.

녀성파외지원대가 대고조시대의 애국자집단으로 자라나게 된데는 이처럼 지원대원 한명한명을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로 교양하고 장군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묶어세우기 위해 바친 한옥련동무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언제인가 지원대원들이 한옥련동무에게 무엇을 제일 사랑하는가고 물은적이 있다. 그때 한옥련동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쇠물을 사랑해요. 쇠물은 식어도 철로 굳어진답니다. 나는 내 일생이 그런 쇠물이 되기 바랍니다.》

식어도 철로 굳어지는 쇠물처럼, 이 말속에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쇠물처럼 심장을 끓이며 살고 자기의 한생을 당을 받드는 철기둥에 아낌없이 고이려는 한옥련동무의 고결한 인생관과 삶의 의지가 비껴있었다.

이처럼 삶의 순간순간 심장의 피를 쇠물처럼 끓이던 한옥련동무는 과로로 하여 올해 1월 또다시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였다. 책임일군들은 그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병원문을 나서지 못하도록 단단히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한옥련동무의 마음은 언제나 파외지원대와 함께 있었다.

지난 2월의 마지막날이였다. 용광로직장에서는 뜻깊은 2월의 마지막총돌격전이 벌어졌다. 그날 한옥련동무는 파외지원전투를 앞두고 병원에 면회를 온 부대장들인 김은선, 리명금동무들의 손을 꼭 잡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하여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를 그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이 시계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지원대원모두에게 안겨주신 믿음의 표창이라고 생각해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원들에게 이 시계초침소리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2월 선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자고 호소해주세요.》

낮이나 밤이나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숨쉬고 그 그리움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바로 여기에 한옥련동무의 고결한 인격이 있고 대고조시대 참된 애국자로서의 그의 숭고한 모습이 있다.

대고조시대 애국로동의 자랑스러운 발기자인 한옥련동무의 투쟁과 생활은 우리 조국앞에 할 일이 그 어느때보다 많은 오늘 부강조국건설에 보탬이 되는 일감을 스스로 찾아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는데 참된 애국의 높이가 있고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 위훈자로서의 삶을 값높이 빛내이는 길이 있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옥련동무를 만나주신 자리에서 대고조시대 조선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애국로동의 자욱을 앞장에서 새겨가고있는 그의 소행을 기특하게 여겨주시면서 친부모의 심정으로 그의 건강까지 따뜻이 념려해주시였고 김철의 녀성파외지원대가 앞으로도 철강재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위훈을 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무한히 고무된 한옥련동무를 비롯한 김철의 녀성파외지원대원들은 지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업소에 주신 새로운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용기백배하여 떨쳐나섰다.

녀성파외지원대원들과 함께 그들의 남편, 부모형제, 친척들까지 파외애국로동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있다.

위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인민모두를 참된 혁명가, 참된 애국자로 키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여 이 땅에서는 한옥련동무와 같은 시대의 애국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옥련동무를 비롯한 김철의 녀성들이 발휘한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고결한 애국심을 적극 따라배워 강성대국건설에서 더 큰 위훈을 창조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더욱 힘있게 시위하여야 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로주봉

한옥련동무(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5일 도이췰란드조선의원단 위원장 슈테판 뮬러를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과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나미비아대통령을 작별방문

안희정 나미비아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4월 29일 히휘케푸네 포함바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을 작별방문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히휘케푸네 포함바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는 자신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그이께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나미비아와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는 샘 누죠마대통령과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오래전에 마련된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나미비아인민의 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다.

우리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한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지금 제국주의자들의 제재 등 여러가지 도전과 난관에 직면하고있지만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자주권을 수호하며 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확신한다.

도이췰란드조선의원단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참관

도이췰란드조선의원단 위원장 슈테판 뮬러가 5일 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하였다.

손님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종합대학이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으로 훌륭히 꾸려진데 대한 해설을 주의깊게 들었다.

그는 외국어문학부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교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손님은 판문점을 참관하였다.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대표단이 떠나갔다

제13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에 참가하였던 회장 김영일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 대표단이 5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영이 전송하였다.

이날 총련 사이다마현상공회 회장 황운해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주체100년사에 빛나는 명작들

보천보전투와 3편의 기념비적예술작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며 모든 행복의 상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항일무장투쟁사에서 가장 큰 분수령을 이룬 보천보전투는 그것이 안겨준 비상한 충격과 거대한 력사적의의로 하여 우리 민족은 물론 전세계에 잘 알려져있다.

이 나라 강산에 드리웠던 일제식민지통치의 참담한 암흑을 불사르며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와 싸워 반드시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준 보천보전투는 해방후 새 조선건설시기 문학예술창작의 주요소재가 되였다.

보천보전투를 소재로 한 문예작품들중에서 유명한 명작들로는 연극 《뢰성》, 장편서사시 《백두산》, 유화 《보천보의 홰불》을 들수 있다.

연극 《뢰성》(희곡 김사량)은 주체35(1946)년에 창작되여 그해 8월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가 열린 날에 첫막을 올리여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새 조선건국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던 우리 인민의 열렬한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작품은 력사적인 서강회의후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일제의 대규모적인 《토벌》공세속에서도 전반적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해 보천보전투를 승리적으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풍모와 그이께 충직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준 작품이다.

작품은 해방후 처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을 형상한 극작품인것으로 하여 주체연극예술의 귀중한 재보로 되고있다.

주체36(1947)년에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국보적명작인 장편서사시 《백두산》(조기천 작)이 창작되여 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희곡으로도 각색되였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그 이름만 들어도 삼도왜적이 벌벌 떨던 빨찌산청년대장 김일성장군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그이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를 중심에 놓고 수령님의 비범한 위인세계를 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민족의 전설적영웅에 대한 전인민적흠모심을 한껏 폭발시켜주었다.

수령형상작품창조와 현대서사시문학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으로 하여 주체문학예술사에서 특출한 지위를 차지하는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당시는 물론 60여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우리 인민들속에서 제일 애송되는 서사시명작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의 사상과 신념, 고결한 민족애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보천보전투는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발표된 이듬해에 또 하나의 명작인 유화 《보천보의 홰불》(정관철 작)을 낳게 하였다.

적통치기관들에서 삼단같이 타오르는 불길이 온 시가지를 밝히는 가운데 밤바다같이 웅실거리는 군중들앞에 나서시여 한손을 높이 추켜드시고 억눌렸던 가슴마다에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을 화폭의 중심에 모신 유화는 사상적내용의 철학성과 형상의 깊이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수령님을 형상한 대표적인 미술작품으로 자기의 력사적지위를 당당히 차지하게 되였다.

작품은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보천보전투가 가지는 사회정치적 및 군사적의의를 집약화, 집중화의 수법으로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히 밝혀냄으로써 주체미술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사에 뚜렷이 새겨진 보천보전투를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창작은 그후 당의 령도밑에 더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였다. 하여 보천보전투를 력사에 길이 전하는 기념비인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과 많은 예술작품들이 훌륭히 창조되였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를 취급한 이 훌륭한 3편의 명작을 오늘도 우리 인민은 민족적인 재보로, 국보로 더없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문학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은 명작창작의 본보기로 대를 이어 전해가고있다.

본사기자 차 수

전국로동자체육경기대회 폐막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 121돐을 맞으며 4월 26일에 개막되였던 전국로동자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였다.

각 도에서 선발된 600여명의 남, 녀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축구, 배구, 장애물극복, 그네뛰기경기가 진행되였다.

선수들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던 나날에 련마해온 체육기술과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잘 보여주었다.

폐막식이 4일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종합 1등의 영예를 지닌 평양시를 비롯하여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메달, 표창장이 수여되였다.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현상주가 폐막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이번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꽃피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모두가 선군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며 앞으로도 대중체육활동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활발히 진행되는 군중문화예술활동

온성군 풍서리에서 군중문화예술활동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예술은 사상과 열정의 산물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에 새기고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인민군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혁명적락관주의를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여러가지 형식의 예술소조활동을 방법론있게 잘하고있다. 이들의 군중문화예술활동은 조직성과 규률성, 열렬한 호소와 전투적기백이 차넘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있다.

얼마전에 진행한 작업반별합창경연에서도 이곳 농장원들은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필승의 신념, 혁명적랑만을 감동깊게 펼쳐보이였다.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벌어지는 군중문화예술활동으로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더욱 높아지고 당면한 농사일에서도 련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로농통신원 윤근화

민족의 밝은 앞날을 밝혀준 조국광복회10대강령

봄빛이 짙어가는 5월과 더불어 우리 겨레는 민족대단결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마련되던 75년전의 나날을 회고하고있다.

주체25(1936)년 5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한 일제에게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였다.

20세기 초엽 일제의 식민지파쑈통치가 절정에 이르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길에 놓여있던 바로 그 시기에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전체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반일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벌리게 되였으며 마침내 조국해방의 력사적사변을 맞이하였다.

하기에 이 력사의 날을 맞이할 때면 남녘겨레들의 가슴마다에도 항일의 불길속에서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세차게 굽이친다.

어느해인가 남조선강원도에 사는 한 로인은 자기 가족들에게 조국광복회창립일을 맞을 때마다 감회가 깊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조국광복회란 해방전에 김일성주석님께서 조직하신 우리 나라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였는데 그 조직선은 여기 속초에도 깊숙이 와닿았었다. 그것이 바로 구국회라는 조직이였다. 여기에는 뜻있는 청년들이 많이 망라되여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해설한 〈대강백자평〉과 같은 인쇄물을 널리 보급했었다.

그때 속초정어리공장에서는 일제의 군수용식품생산을 거부하는 파업이 빈번히 일어나고 그 주변농촌지역에서는 강제공출과 전시부담을 반대하는 다양한 대중투쟁도 활발히 벌어졌는데 그것들도 다 구국회의 지도와 영향하에 일어난것들이였다. 정녕 김일성주석님은 군사를 일으켜 무장으로 관동군을 녹여내시는 한편 조국광복회와 같은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주위에 광범한 군중을 집결시켜 전민항쟁으로 일제의 패망을 촉진하고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이것이 어찌 한 로인의 말이라고만 하겠는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어려운 투쟁속에서도 조국광복회를 조직하시고 손수 그 강령을 작성하시여 우리 민족에게 광명한 앞날을 밝혀주시였다.》

《나는 우리 민족에게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같은 위대한 통일대강이 있다는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항일전쟁시기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밝히시고 2천만 동포를 하나로 묶어세우시여 조국의 해방을 가져다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것이다.》

…

남녘의 곳곳마다에서 울려나온 이 목소리들에 일찌기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고 민족해방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남녘겨레의 한없는 경모의 정이 그대로 슴배여있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된 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러갔고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정녕 해내외의 온 민족이 단결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놓수 있은것은 민족대단결위업실현에 바쳐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헌신의 로고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연구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사와 관련한 론문에서 조국광복회창립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강조하면서 《조국광복회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항일유격대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적지도체계속에 편입되게 함으로써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무장투쟁과 국내외의 혁명운동을 결합시켜 민족해방운동의 질적전환을 보장하게 하였다.》라고 썼다.

다른 한 대학교수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반일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민족단합의 리념을 제시하시고 광범한 반일애국세력을 조국광복회에 집결시키시였으며 단합된 힘으로 반일투쟁을 벌리도록 이끄시여 마침내 조국해방을 이룩하시였다.》라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민족대단결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남녘의 민심은 남조선출판물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력사교과서, 도서 《항일혈투사》, 잡지 《신동아》 등은 《조국광복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 최초의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였다. 그 력사적의의는 결코 과소평가될수 없다.》라고 서술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조국광복회의 창립과 그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잡지 《말》은 《오늘 조국통일의 리정표로 되고있는 6.15공동선언도 김일성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에 바탕을 두고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중심사상이 바로 민족대단결사상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새 세기의 민족대단결리념인 우리 민족끼리가 있어 온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실현되고 통일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온다는것이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드팀없는 신념이다.

그러한 남녘의 민심을 담아 언제인가 남조선 대구의 한 거리에는 이런 내용의 인쇄물이 뿌려져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김일성주석님과 꼭같으신 김정일령도자님께서 계십니다. 김정일령도자님은 민족의 운명이시고 민족대단결의 중심이십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계시여 8.15해방이 있었듯이 김정일령도자님께서 계시여 제2의 8.15해방, 조국통일의 날은 기필코 오고야말것입니다.》

정녕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고 그 기치높이 조국해방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세월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며 민족대단결의 중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복은희

불세출의 영웅

위인의 업적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는 법이다. 남녘인민들속에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사가 《대백과사전》 등에 서술되고있으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소개선전되고있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잡지들에는 이런 글이 실려 내외의 주목을 끌었다.

《항일투쟁초기의 공산주의자들은 태양이라는 뜻의 날일자와 이룰성자를 써서 주석님을 김일성이라는 존함으로 부르며 존경해마지않았다. 이것은 당시 조선민족이 김일성주석님을 얼마나 우러르고 받들었는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항일의 전설적영웅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는 남녘의 민심이 반영된 글이다. 그러한 민심은 남조선각계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민족해방운동의 주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끈 항일무장투쟁이였다.》, 《일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고 해방을 이룩하신분은 김일성주석님이시다.》, 《보천보전투는 우리 민족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었다.》, 《해방이전의 력사, 특히 항일투쟁사는 정확히 기술되여야 민족정기를 바로잡을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해마지않고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남조선출판물들도 《김일성주석님은 군사전문가로서의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김일성주석님은 우리 민족이 낳은 불세출의 영웅이시다.》라고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하고있다. 한 잡지는 《일본제국주의자들과의 전투를 통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운 가장 재능있는 위대한 지도자는 김일성장군이시였다.》, 《김일성장군은 조선인들 가슴속에 전설적인 영웅으로 자리잡게 되였다.》고 하면서 당시 어버이수령님은 우리 인민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였다고 소개하였다.

어느해인가 남조선군의 한 퇴역장교는 자기가 소꿉시절 어른들로부터 《김일성장군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귀몰하는분이시다.》, 《김일성장군은 축지법을 쓰신다.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을 주름잡아 달리면서 일본놈들을 족쳐버리신다.》 등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수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그 모두가 《가슴을 한없이 부풀어오르게 하는 이야기》들로서 《자꾸 들었지만 언제나 통쾌하기 그지없었다.》고 감회깊게 추억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동료들에게 해방후 새 조선을 이끌 민족의 지도자는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고 말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는 인터네트홈페지에 《김일성주석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걸출한 위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민족과 세계인류의 최고위인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글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민족과 세계인류의 최고위인으로 높이 칭송받고계시는것은 그이께서 항일운동의 지도사상을 뛰여넘어 전세계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밝힌 새시대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10대의 어린시절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세계의 그 어떤 위인도 따를수 없는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탁월한 정치가이시기때문이라고 썼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잊지 못해하며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려는 남녘겨레들의 마음은 이처럼 뜨겁고 열렬하다.

본사기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남조선괴뢰패당이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전례없이 악랄하게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괴뢰패당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에서 미국, 일본의 어중이떠중이들까지 끌어들여 《북자유주간》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놀음들을 집중적으로 벌렸다.

뿐만아니라 여론의 규탄배격을 받아 휴지장이 되여버린 극히 불순한 《북인권법》을 기어이 조작해보려고 온갖 비렬한 책동에 매달리고있는가 하면 괴뢰인권위원회를 내세워 《북인권피해신고》요, 《실태조사》요 하는 광대극을 벌리고 지어는 그 무슨 《국제조사위원회》 설치를 운운하면서 국제무대에 나가서까지 망동을 부리고있다.

이것은 대내외정책의 총파산과 민심의 심판으로 막다른 궁지에 몰린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괴뢰패당의 집권 3년간 남조선은 최악의 인권유린지대, 민주의 페허지대로 더욱 전락되여 통치배들에 대한 인민들의 원성은 하늘에 닿고있다.

가혹한 파쑈독재통치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여지없이 말살되고 생존권마저 빼앗겨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다.

더우기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은 인권은 고사하고 핵참화의 위기에 놓여있다.

남조선에서 진행된 4.27보충선거결과는 민심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게다가 괴뢰패당은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책동과 핵소동에 발광하다가 오히려 안팎으로 고립되여 헤여날수 없는 처지에 빠져있다.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은 분노한 남조선민심과 사회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는 한편 반공화국대결정책과 핵소동이 총파산에 직면한 조건에서 인권을 코에 걸고 모략책동에 더욱더 매달려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달성해보려는데 그 추악한 속심이 있다.

남조선을 인권의 불모지로 만들어 민심의 심판대에 오른 괴뢰보수패당이 감히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제도와 공화국을 거들며 인권모략소동을 벌리는것이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망동이다.

괴뢰패당이 주제넘게도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가지고 떠들면 떠들수록 동족대결무리, 반통일집단으로서의 정체만 더욱 드러날뿐이다.

우리 인민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는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징벌할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보수당국의 반공화국,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세계직업련맹 제16차대회에서 조선에 관한 련대성결의 채택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세계직업련맹 제16차대회에서 조선에 관한 련대성결의가 채택되였다.

결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근로자들은 조선의 북과 남이 조선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련방제방안에 따라 자주통일을 실현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갈것을 한결같이 바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조선의 북과 남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발표하고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화해와 협력, 대화와 래왕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 출현한 친미보수당국이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림으로써 북남관계는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위험에 처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책임이 있다.

65년이상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분렬의 장본인인 미국은 조선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자주적통일에 훼방을 놀면서 남조선보수당국을 반공화국대결에로 부추기고 핵무기 등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참화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반공화국침략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한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을 반대하고 침략과 전쟁을 추구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있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보수당국의 반공화국,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무력증강과 군사적간섭,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즉시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조선반도의 통일과 평화번영은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조선의 북과 남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조선민족의 장래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인정한다.

이 련방제통일방안의 정당성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근로자들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6.15공동선언채택이후 북남관계가 대결과 불신의 관계로부터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전환되였던것은 비록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가 달라도 민족공동의 리익과 목적을 앞세우고 투쟁한다면 통일과 번영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식을 버리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며 북남관계개선의 길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선군정치야말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나라의 자주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믿음직한 정치방식이라고 인정한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근로자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초불투쟁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서명운동

남조선의 시민정치행동이 2일 초불투쟁참가자들에 대한 괴뢰당국의 부당한 탄압을 규탄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2008년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초불투쟁에 참가하였다는 리유로 1 400여명을 형사처벌하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당시의 대규모적인 초불투쟁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각계 민중의 정당한 항의였다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단체는 투쟁참가자들을 《범죄자》로 몰아대는 당국의 탄압조치에 대응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평화통일실현을 호소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일 성명을 발표하여 단결된 힘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할것을 호소하였다.

성명은 5.1절에 즈음하여 각계 민중의 생존권과 평화통일념원을 짓밟은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떨쳐나선 로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 당국의 집권기간은 로동운동탄압, 부자감세, 환경파괴, 동족대결, 전쟁책동, 사대매국 등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있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최근 당국이 미국, 일본과의 침략적인 동맹강화에 피눈이 되여 날뛰면서 북침전쟁장비구입에 열을 올리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것은 동족대결과 조선반도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북침전쟁장비구입에 막대한 혈세가 탕진되고 민중의 생존이 위협받는 오늘의 현실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각계 민중이 단결하여 현 《정권》을 심판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청년실업위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망발 규탄

남조선의 《청년에게 일자리와 권리를! 청년공동행동》 준비위원회가 1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청년실업위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괴뢰당국의 비렬한 행위를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은 얼마전 고용로동부장관이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원인이 문학, 력사, 철학전공자가 너무 많기때문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넉두리를 늘어놓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사상 최악에 이른 청년실업사태의 책임을 청년들에게 돌리기 위한 망발로서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성과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고있다고 회견문은 단죄하였다.

회견문은 청년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계속 이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고용로동부 장관을 즉시 해임하고 청년실업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동의 권리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로동자들

미국의 신자유주의략탈정책을 단죄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가 1일 《로동계급이 앞장서서 미제의 신자유주의 박살내고 자주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5.1절 121돐을 맞는 이 시각 미국의 식민지지배하에 있는 남조선에서 사대매국세력과 자본의 횡포가 날로 악랄해지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수많은 로동자들이 정리해고와 산업재해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비정규직로동자증가, 로조운동의 위기사태가 초래된것은 미국이 만연시킨 신자유주의정책의 산물이라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이로부터 남조선로동자들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반대, 미군철수를 사생결단의 과제로 여기고 이를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로동자들이 미국의 신자유주의략탈정책을 끝장내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앞장에서 투쟁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남조선대학생들 등록금문제해결을 요구

남조선의 《21세기 한국대학생련합》이 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학등록금문제를 시급히 해결할것을 괴뢰당국에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현재 대다수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때문에 휴학을 하고 과외로동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외면하고 오히려 등록금인상을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련행을 일삼고있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당국이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기만적인 학자금대출제도를 추구한 결과 대학생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반값등록금공약을 하루빨리 리행할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숙명녀자대학교, 고려대학교, 리화녀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의 총학생회장들이 괴뢰당국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삭발하였다.

이어 대학생들은 당국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행진에 나섰다.

파쑈경찰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탄압에 날뛰는데 격분한 대학생들은 아직도 현 《정부》가 이번 보충선거를 통해 분출된 민심을 알려고 하지 않고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북침전쟁책동은 긴장격화의 근원

남조선보수당국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고 첨예하다.

군부호전광들은 최근에도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을 벌려놓음으로써 우리의 대화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군사적대결을 격화시키고있다.

올해에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으로 북남사이에 대화가 마련되였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된것도 보수당국의 대결전쟁책동때문이다.

남조선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전쟁책동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수 없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보수세력이 등장한 때로부터 지나온 3년간의 실태가 말해주고있다.

보수세력이 집권하여 남조선에서는 동족을 해치기 위한 무력증강책동이 날로 강화되였다.

보수패당은 권력을 차지하자마자 북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 《군사적우세》에 있다고 떠벌이면서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흉악한 속심을 드러내놓았다.

보수집권세력이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책동에 얼마나 환장하였는가 하는것은 인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무기구입액이 해마다 계속 불어나고있는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스웨리예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현 보수당국이 출현한 이후 군사비지출액은 해마다 껑충 뛰여오르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얼마전에 대잠수함무력의 강화와 무인정찰기 및 스텔스전투기의 도입, 대포병탐지레이다와 합동직격탄의 배비, 싸이버사령부의 조직, 그 누구의 《특수부대》에 대한 대응무력강화 등을 위해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도 무력증강책동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감행되고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남조선호전광들은 그 무슨 《군사적우세》를 운운하며 《F-15K》전투폭격기와 같은 최신공중타격수단들의 도입과 《이지스》구축함의 실전배치, 공군지휘체계의 개편과 대규모적인 해군기지건설 등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며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탕진하여 최첨단전쟁장비들을 수많이 끌어들이였다.

이것이 동족사이에 군사적대결을 격화시키고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 보수집권세력이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확보》니, 《선제타격》이니 하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은 그들의 무력증강책동이 북침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보수집권세력의 호전적정체는 집권초기부터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매일과 같이 광란적으로 벌려놓은것을 통해서도 날날이 드러났다.

남조선호전광들은 기존의 군사교리를 이른바 《억제》로부터 《선제공격》으로 고쳐놓았고 그에 따른 북침선제공격연습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보수당국이 집권하여 첫해인 지난 2008년에 감행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는 2만 7 000여명에 달하는 미군과 미항공모함,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수많은 기동타격무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이 동원되였으며 2009년과 2010년에도 보다 방대한 무력이 연습규모와 기간까지 확장해가며 질은 화약내를 풍기였다.

올해에도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지난해에 비해볼 때 그 기간이 훨씬 늘어났고 병력수에서도 종래의 규모를 훨씬 넘어 무려 21만여명에 달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보수당국이 3년간 외세와 작당하여 각종 명목으로 벌린 합동군사연습회수는 2008년에 31차, 2009년에는 37차, 2010년에는 50차로서 체계적으로 확대되여왔다.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호전광들이 감행한 전쟁연습의 주요목적과 내용이다.

특히 지난 3월에 있은 호전광들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우리의 전략적요충지들을 선제타격한다는 새로운 북침전쟁각본에 따라 감행되였다.

여기에는 핵무기제거훈련, 산악극복훈련, 시가전훈련, 지휘거점정밀타격훈련, 치안작전훈련 등 각종 도발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여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방어》의 외피를 쓰고 감행된 호전광들의 무모한 전쟁연습소동들의 침략적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고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지난 3년간 호시탐탐 북침전쟁도발의 기회만을 노려왔다.

끊임없는 무력증강책동과 잦은 불장난소동이 전쟁에로 이어진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실제로 남조선호전광들은 우리를 자극하고 전면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도발소동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집권초기부터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이니, 《보복과 응징》이니 하는따위의 도발적망발들을 마구 내뱉으며 《주적론》을 부활시키고 사회전반에 동족대결의식을 극구 고취하였다.

또한 서해안과 중부, 동부의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악랄한 삐라살포행위를 포함한 반공화국심리모략전에 집요하게 매여달렸다.

대표적인 사건들인 서해해상분계선에서의 무장충돌과 《천안》호침몰사건, 연평도포격사건들도 남조선호전광들의 새 전쟁도발기도의 발로였다.

지난 2009년 서해해상에서 일어난 무장충돌은 보수당국이 우리측 령해에 저들의 함정을 침입시키고 경계근무를 수행하는 우리 경비정에 먼저 발포한것으로 하여 빚어진 도발사건이였다.

당시 사건발생이전에 이미 여러척의 남조선군함선집단이 전투대형을 짓고 대기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은 남조선호전광들이 우리에 대한 무장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 역시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야망을 뚜렷이 보여주는 생동한 증거이다.

사건발생수역에 미제와 남조선괴뢰군의 전투함선들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위해 전개되여있었다는 사실과 남조선당국이 《증거》로 제시한것들이 만사람의 조소와 의혹을 자아낸 사실,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사건에 대한 의문과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있는 사실들은 누가 생억지를 부리고 도발을 꾀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포사격을 가한 연평도포격사건과 그 이후의 모든 사태들도 보수세력의 북침야망을 날날이 폭로해주었다.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무분별한 대결전쟁광증이 이미 무모한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결전쟁책동은 보수당국에 있어서 출로가 아니라 자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장윤남

친일사대적망동 규탄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2일 괴뢰역적패당의 친일사대적망동을 단죄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정부》가 한 국제기구에 조선동해와 《일본해》라는 표기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의견을 제출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1차전략》이니 뭐니 하며 민중을 기만하고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그동안 대일관계에서 《조용한 외교》에 대해 운운하며 일본의 로골적인 독도강탈야욕을 묵인해온 당국이 이제는 친일사대적근성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고 규탄하였다.

론평은 당국이 독도를 포기하는것이나 다름없는 망동을 즉시 철회하고 민중앞에 사죄하는것과 함께 지금이라도 굴욕외교를 걷어치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불패의 강군 조선인민군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9돐에 즈음하여 브라질에서는 집회와 영화감상회가, 영국에서는 영화감상회가 4월 23일과 27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브라질 싼따 까따리나주 자르디노뽈리스시청,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오늘의 평양》, 《조선의 대답》이 상영되였다.

브라질 싼따 까따리나주 자르디노뽈리스시 시장은 조선에서의 군건설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조선인민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브라질 싼따 까따리나주 자르디노뽈리스시 문화국장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고 격찬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강력한 무장력이 없었다면 조선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또다시 강요당하였을것이다.

김정일각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조선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성과를 담보해주는 생명선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 ⁂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9돐에 즈음하여 라오스, 우간다, 수리아신문이 특집하였다.

라오스신문 《비엔티안마이》 4월 29일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찬양하는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인민군은 오랜 세월 적대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며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해주고있다고 전하였다.

신문은 조선인민군은 주체의 군사사상과 전법으로 철저히 무장한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이다, 최고사령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실성을 기본핵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이 전군에 꽉 차넘치고있는것이 바로 조선인민군이다고 서술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군민일치는 사회주의조선의 오랜 력사적전통이며 기풍이다.

조선인민군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선군령도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는것이 조선사회의 현실이다.

또한 이 나라 신문 《빠싸손》 4월 27일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불패의 조선인민군》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인민군은 수십년간 적대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에서 련전련승하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인민군이 백승을 떨치는 요인은 특출한 지도사상과 군사전법에 있다고 하면서 신문은 우리 인민군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는 주체의 군사사상과 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한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신문은 조선인민군의 불패성의 비결은 정치사상적위력에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최고사령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실성을 기본핵으로 하고있는 혁명적군인정신이 전군에 차넘치고있는것이 조선인민군이다. 인민군군인들은 최고사령관을 삶의 어버이로, 운명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며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있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일하에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령군체계가 확립되였으며 누구나 그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에 넘쳐있다.

같은 날 이 나라 신문 《바테라오》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우리 혁명무력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소개하는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인민군의 강위력한 힘의 원천은 군민대단결에 있다고 하면서 군민일치는 사회주의조선의 오랜 력사적전통이며 기풍이다, 전체 군민이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따라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것이 조선사회의 현실이다고 강조하였다.

우간다신문 《싼 라이즈》 4월 25일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모시고 《조선인민군창건 79돐에 즈음하여》라는 표제밑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오늘 국제사회에서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강군으로 알려져있다. 그것은 조선인민군이 전설적령장이신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주체의 군사사상으로 무장하고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령도를 받고있기때문이다.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은 세계 그 어느 나라 군대도 따를수 없는 정치사상적위력에 있다. 조선인민군의 불패성은 또한 무진막강한 군사기술적위력에 있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을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은 불패의 강군으로서의 위용을 길이 떨쳐갈것이다.

수리아신문 《알 바아스》 4월 25일부는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위용떨치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상세히 전하였다.

⁂ ⁂

건군절에 즈음하여 지역기구와 스위스단체들이 4월 23일과 25일 인터네트홈페지에 기념글을 올렸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은 인터네트홈페지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사진을 모시고 《조선인민군》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1932년 4월 25일 김일성주석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는 그후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되였으며 1948년에는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시며 전설적령장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제시하신 군사사상은 군인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대하는 사상으로서 무기를 만능으로 하는 기성리론과 구별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이 군사사상으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일제의 백만대군과 싸워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1950년대에는 《강대성》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다.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인민군대의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심으로써 모든 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은 최고사령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실성을 근본핵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하였으며 김정일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군은 불패의 강군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하며 승리만을 떨치고있다.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인터네트홈페지들에 《승리의 기치선군》 등의 제목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을 계승발전시키시여 우리 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빛내이시는데 대하여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

본사기자

군국주의광신자들의 무분별한 망동

일본우익보수정객들이 또다시 군국주의적발작증을 일으키고있다.

얼마전 일본 자민당 총재와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이 《야스구니진쟈》에 무리로 찾아가 참배하면서 군국주의를 고취하는 망동을 부렸다. 여기에는 민주당, 국민신당, 《일어나라 일본》을 비롯한 여당과 야당 등 우익보수정객들이 참가하였다.

일본의 당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정객들이 《봄철대제》를 맞으며 《야스구니진쟈》에 승벽내기로 몰려가 지난날 해외침략에 미쳐날뛰다가 력사의 준엄한 징벌을 받고 뒈진자들의 명복을 비는 추태를 부린것은 군국주의망령을 되살리려는 위험한 망동이다.

자민당 총재는 《야스구니진쟈》참배후 《나라를 위해 희생된분들의 령혼을 위로하는것이 필요하다.》느니 뭐니 하고 뇌까렸다. 그가 아시아침략과 태평양전쟁에서 악명을 떨친 일제전범자들을 《나라를 위해 희생된분》들이라고 하면서 《애국자》로 적극 추어올린것은 세계량심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며 로골적인 군국주의선전책동이다.

세상사람들은 오늘도 일제가 지난날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저지른 성노예범죄, 세균전, 대중적학살과 같은 치떨리는 죄행들을 잊지 않고있다.

일본우익보수정객들이 과거 반인륜적죄악을 저지른 일제전범자들을 《애국자》로 내세우는것은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재침의 길로 나아가려는 수작이다.

일본반동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는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들은 매해 일제패망일과 《봄철대제》, 《가을철대제》 등 주요계기때마다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을 벌리고있다.

이런 방법으로 일본반동들은 《야스구니진쟈》참배를 어떻게 하나 정례화, 대중화하고 국가의례행사처럼 만들어 군국주의사상적지반을 닦고 광범한 각계각층 사람들을 군국주의력사관, 침략의식으로 무장시키려 하고있다.

《야스구니진쟈》로 말하면 아시아나라들과 일본사이의 피맺힌 과거사가 얽혀있는 곳이다. 이곳은 일반사당이 아니라 군국주의상징이며 그 사상전파의 거점이다.

일본우익보수정객들이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것은 곧 일제전범자들의 침략사상과 뜻을 따르며 일본사회에 군국주의바람을 몰아오자는것이다. 그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은 한마디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침략력사를 재현하려는 흉계와 잇닿아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아시아나라들을 비롯한 국제사회계가 일본반동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을 군국주의적망동으로 규탄배격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내외민심과 시대의 요구에 배치되게 이런저런 미명하에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을 계속 뻐젓이 벌리고있다. 정상사고에서 탈선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것이다. 그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는 명백히 군국주의적사고방식과 야심의 발로이다.

뜻밖의 대재난을 당하여 일본인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으며 불안과 공포에 싸여있는 때에 술한 일본정객들이 《야스구니진쟈》를 또다시 참배한것은 군국주의광신자들만이 할수 있는 정신빠진 행위이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력사외곡, 독도강탈책동을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 그들은 과거범죄를 모두 《정당》하며 《의로운것》으로 미화분식하고있을뿐아니라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한사코 우겨대고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령토팽창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눈에 피발을 세우고 날뛰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일본정계에서 군국주의재침열기로 인한 정신이상증세가 우심하게 나타날수록 일본의 운명이 그만큼 위태로와지고있다.

짐승도 한번 빠진 함정에는 다시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무분별한 군국주의부활, 재침책동이 일본을 파멸의 함정으로 밀어넣는 얼빠진 행위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고 정신을 차리는것이 좋을것이다.

리경수

주체사상의 출발점

네팔신문 글 게재

네팔신문 《아르판》 4월 22일부가 《주체사상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진보적인 사상은 사회력사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주석께서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여 인류력사의 새로운 시대인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다.

주석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실 당시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있었다.

조선혁명의 경우 인민대중이 혁명의 길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도록 하는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발견하시였다.

이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조선혁명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방식이 없이는 단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였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군현대화사업을 힘있게 추진

중국이 군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최근 중국에서 전군인재사업회의가 진행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호금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회의소집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는 회의참가자들이 인재건설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군대인재전략공정을 심도있게 실시하며 높은 자질을 갖춘 새형의 군사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방 및 군대건설의 과학적발전을 위한 담보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서재후는 등소평리론과 《3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과학적발전관을 깊이있게 관철집행하고 정보화군대를 건설하며 정보화전쟁에서 싸워이길데 대한 전략적목표를 확고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2020년전까지의 군대인재발전계획요강》의 관철집행을 전면적으로 틀어쥐고 자질높은 새형의 군사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하여 국방 및 군대건설의 과학적발전을 추동하는데 공고하고도 힘있는 인적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국중앙군사위원회가 발행하여 전군이 집행하도록 한 《2020년전까지의 군대인재발전계획요강》은 호금도 주석이 비준한것으로서 앞으로 중국인민해방군의 인재건설과 발전을 위해 채택한 중장기적인 전략계획이며 새로운 출발점에서 군대인재건설의 과학적발전을 추진하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이 요강은 중국의 안전과 발전형세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국방과 군대건설의 과학적발전을 위한 주제와 주선을 중심에 놓고 현시기와 앞으로 일정한 기간 군대인재건설의 단계적특징과 인재에 대한 요구 등을 명확히 반영하였다고 한다.

중국은 군현대화를 위하여 스텔스전투기개발과 항공모함건조 등에도 힘을 넣고있다.

지난 4월 중국에서 스텔스전투기 《섬-20》의 시험비행이 다시 있었다. 사천성 성도의 비행장에서 리륙한 이 전투기는 시험비행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무사히 착륙하였다. 이번에 또다시 스텔스전투기 《섬-20》의 시험비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중국은 공군현대화를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가까운 몇해안에 스텔스전투기 《섬-20》을 공군부대들에 배비하려 하고있다.

얼마전 중국신문 《국제선구자안내보》가 자국의 첫 항공모함의 시험항행이 가까운 시일안에 진행될것이라는 예측보도를 하였다.

《중국의 첫 항공모함탄생기》라는 제목으로 된 글에서 신문은 항공모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첫 항공모함의 주요임무는 함재기의 비행사훈련이나 작전지휘제어체계의 조정 등 항공모함의 전투시의 작전방법을 련마하는것이라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올해가 중국항공모함의 원년으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여러해전에 다른 나라에서 항공모함을 구입하고 그에 대한 정비보수와 개조를 다그쳐왔다. 최근에는 이 사업을 전부 끝내고 배비에 착수하게 된다고 한다. 중국은 이와 함께 자체의 신형항공모함들도 건조하고있다. 그중 한척은 2014년에, 다른 한척은 2020년에 진수하게 된다고 한다. 중국의 이 신형항공모함들에는 국산제해군전투기들을 탑재하게 된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이미 함재기비행훈련을 진행하는 등 항공모함에서 근무하게 될 성원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중국이 가까운 년간에 현대화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리학남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꾸바에서

꾸바에서 코코아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나라에서는 앞으로 5년동안에 코코아재배면적을 4 000ha 더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현재 년간 2 000t의 코코아가 생산되고있는데 정부는 2015년에 가서 그 량을 4 000t으로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 3월에 실업률이 1.9%로 감소되였다. 이것은 지난 3년동안의 가장 낮은 률이라고 한다.

4월 29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메히꼬에서

메히꼬국회 상원이 최근 비법적인 자금류통방지에 관한 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비법적인 자금류통을 조사하는 그루빠가 조직되고 금융기관들에서의 자금통제사업이 보다 강화되게 된다.

법의 채택은 조직적인 범죄를 방지하고 나라의 금융체계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베네수엘라경찰이 4월 29일 쥴리아주에서 반마약작전을 벌렸다. 작전과정에 105㎏의 마리후아나가 압수되였다.

이 나라 경찰은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14t이상의 각종 마약을 적발, 몰수하였다.

먄마에서

먄마에서 우주공업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 정부는 자체의 통신위성을 쏴올릴것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맡아할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새로 내왔다.

이 위원회들은 가까운 기간내에 통신위성발사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본사기자

초음파감시기구 개발

어느 한 나라에서 최근 수술의 안전성을 높이는 새로운 초음파감시기구를 개발하였다.

이 기구를 리용하면 피흐름속도와 량을 측정하여 어느 정도의 산소와 영양소가 내장에 가닿고있는가를 알수 있다.

또한 수술시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피와 체액의 량을 조절하여 피흐름을 가장 적합한 수준에서 유지하며 수술후의 합병증도 막을수 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군기지 반대투쟁

일본 오끼나와현주민들이 4월 28일 미군기지를 반대하여 나하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날 현의 가데나미군기지주변에 살고있는 2만 2 000여명의 주민들은 재판소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야간비행을 비롯한 미군용기들의 비행을 금지시킬것과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지진

인도네시아의 쑤마뜨라섬앞바다에서 4월 29일 리히터척도로 6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아쩨주의 메울라보흐시로부터 63㎞ 떨어진 곳에 있었다.

같은 날 쟈바섬에서도 리히터척도로 5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족쟈까르따의 반툴로부터 서남쪽으로 132㎞ 떨어진 곳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제협력개발기구 성원국들에서 에네르기가격 인상

경제협력개발기구 성원국들에서 올해 3월에 에네르기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4% 인상되였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실업문제를 해결할 립장 천명

베네수엘라대통령 우고 챠베스 프리아스가 1일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기념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실업문제를 해결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나라에서 앞으로 8년동안에 350만개의 일자리를 조성하여 실업문제를 완전히 해결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설과 농업부문 직업교육에 관한 새로운 계획을 실행할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협조

케니아와 우간다가 4월 30일 두 나라 국경지역을 통과하는 철도와 석유수송관건설을 추진시킬데 대해 토의하였다.

이에 앞서 4월 28일 도미니까와 아이띠는 콜레라의 전파를 막기 위한 투쟁을 공동으로 벌리기로 합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항의집회와 시위

— 그리스의 각지에서 1일 대중적인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로조의 호소에 따라 일어난 시위들에는 1만명이상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당국의 그릇된 긴축조치로 근로자들의 생활처지가 더욱 악화되고있는데 대해 항의하였다.

— 에스빠냐의 마드리드에서 1일 대중적인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로조의 호소에 따라 일어난 시위에는 약 2만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 미국 뉴욕시의 맨하탄에서 1일 대중적인 항의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로조의 호소에 따라 일어난 집회와 시위에는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안정된 일자리와 안전한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릴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미국에서 그릇된 대외정책에 항의하여 시위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전진시키려는 확고한 의지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4월 꾸바공산당 제6차대회가 진행되였다.

이번 당대회는 꾸바혁명의 사회주의성격선포 50돐이 되는 날을 맞으며 진행된것으로 하여 그 력사적의의가 자못 큰 회의였다.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꾸바공산당은 반제, 반미, 사회주의의 길로 꿋꿋이 나아갈 당과 인민의 혁명적립장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이번 당대회에서 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까스뜨로동지의 보고를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그는 보고에서 사회주의경제정책방향은 사회주의의 계승과 불변성 그리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담보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정책이 담겨진 인민들의 의지의 표시이라고 말하였다.

꾸바공산당 제6차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5개 위원회와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의견교환과 대중적인 토의끝에 승인된 문건인 당의 사회주의경제정책초안을 심의하였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꾸바공산당이 꾸바민족의 조직적전위대이며 사회와 국가의 최고지도력량이라고 규정한 공화국헌법 5조리행에서 나서는 문제를 구체화하고 당사업방법과 작풍개선을 위해 다음해 1월에 당대표자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또한 꾸바혁명이 꾸바공산당 제6차대회를 계기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데 대해 미국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울려나왔다.

꾸바공산당 제6차대회 대표들의 토론을 청취한 꾸바혁명의 지도자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꾸바신문 《그란마》에 《대회토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는 글에서 높은 문화수준을 소유한 새 세대들의 준비정도에 경탄하게 된다고 하면서 새 세대들의 과제는 사회주의를 선포하였을 때보다 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혁명적원칙이 새 세대들에게 넘겨줄수 있는 기본유산이라고 밝히고 새 세대들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시정하고 변혁해야 할것은 동요없이 하며 사회주의는 불가능한것을 실현하는 예술이라는것을 계속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라울 까스뜨로동지는 꾸바공산당 제6차대회 페막연설에서 호쎄 마르띠탄생 159돐이 되는 날인 2012년 1월 28일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당이 사회와 국가의 최고지도력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필요한 대책들을 확정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의 기본임무는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더욱 완성해나가는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본주의제도가 복귀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굳은 신념과 약속밑에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의 직무를 맡는다고 언명하였다. 또한 그는 모든 꾸바인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의 사회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사업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면서 자기 나라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미국의 제재조치속에서도 경제를 변혁하고 진전을 이룩해나가고있는 몇개 안되는 나라들중의 하나이라고 강조하였다.

반제자주,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전진해나가려는 꾸바당과 인민의 의지는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통해서도 과시되였다.

꾸바공산당 제6차대회가 개막된 날 아바나에서는 꾸바혁명의 사회주의성격선포 50돐과 뽈라야 히론전투승리 50돐기념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인 라울 까스뜨로동지가 열병식을 사열하였다. 꾸바혁명무력의 구분대들과 군사교육기관 학생들이 수도의 혁명광장을 행진해나갔다. 이어 각종 장갑기술기재들과 방사포, 자행포, 미싸일종합체들이 지나갔으며 전투기들과 군용직승기들이 아바나상공을 비행하였다.

열병식에 뒤이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내용의 프랑카드들과 피델 까스뜨로동지와 라울 까스뜨로동지 기타 꾸바혁명가들의 초상화를 든 군중이 《혁명 만세!》, 《피델 만세!》, 《라울 만세!》를 웨치며 혁명광장을 행진하여나갔다고 외신들은 전하였다.

얼마전 꾸바신문 《그란마》는 꾸바공산당 제6차대회에 즈음하여 현재까지 54개 나라에서 108건의 축전을 꾸바공산당에 보내여왔다고 보도하였다. 축전들에서는 꾸바가 외부세력의 압력을 이겨내고 사회주의의 길로 꿋꿋이 나아가면서 혁명과 건설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해 찬양하였다.

제반 사실은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려는 꾸바공산당과 인민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며 그들의 정의의 위업은 국제적지지성원을 받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신경섭

재난을 몰아오는 회오리바람

요즘 미국에서 회오리바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짙어가고있다. 그것은 최근 미국의 중남부지역을 대대적으로 휩쓴 회오리바람에 의한 피해와 관련된다. 중남부지역에서는 지난 4월에만도 900회이상의 회오리바람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대규모피해가 난 지난 4월 27일 하루에만도 200차례이상의 회오리바람이 발생하였다.

회오리바람에 의한 인적 및 물적피해가 커가고있다. 지난 4월말현재 사망자만도 350명이 넘는다. 특히 피해가 가장 큰 알라바마주에서는 회오리바람으로 적어도 238명이 숨졌다. 테네시주와 미씨시피주, 죠지아주, 아칸소주, 버지니아주 등 다른 지역들에서도 사망자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미국의 해당 기관은 이번에 중남부일대를 강타한 회오리바람에 의한 전체 사망자수와 피해규모를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7개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였다.

미국의 중남부지역을 휩쓴 회오리바람의 발생원인은 라니냐현상때문이라고 한다. 라니냐란 태평양 적도동부, 뻬루앞바다의 물면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라니냐현상으로 세계 여러곳에서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나는것으로 보고있다. 1998년 6월에 라니냐현상이 일어나 인간생활과 생태환경에 큰 피해를 주었다. 이전에 따스한 겨울이 지속되던 지역들에 강추위와 폭설이 들이닥쳤으며 큰물이 적게 나던 지역에서 지난 시기에는 있어보지 못한 큰물피해가 났다. 지난 100여년동안에 라니냐현상은 수십번 나타났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자연현상인 라니냐는 때아닌 무더기비와 폭설, 강추위와 태풍, 회오리바람 등을 몰아오는 화근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기상전문싸이트는 라니냐현상으로 올해가 최악의 회오리바람의 해로 기록될것이라고 전하였다.

미국의 기상담당기관은 이달에도 강력한 회오리바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있다. 미국의 중남부지역에서는 이미전부터 계속된 폭우로 미씨시피강이 범람할 위기에 놓여있어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벌써 미씨시피강일대의 각종 시설들이 페쇄되고 주변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본사기자

ㄱ-11085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